

# 2018

정책연구 2018-10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연구

연구진 나정호 · 오병록 · 고연경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8-10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연구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나 정 호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 | 오 병 록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      | 고 연 경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

---

|      |                                   |
|------|-----------------------------------|
| 자문위원 | 김 형 섭 • 군산대학교 교수                  |
|      | 황 선 도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br>생태복원실장 |

---

연구관리 코드 : 17JU3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 3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3   |
| 2. 선행연구 .....                 | 10  |
| 제2장 전라북도 어촌현황과 과제 .....       | 17  |
| 1. 국내외 어촌환경변화 .....           | 17  |
| 2. 전라북도 어촌 실태조사 .....         | 25  |
| 3. 어촌 공간 활용계획과 실천 .....       | 64  |
| 4.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과제 .....      | 75  |
| 제3장 어촌 및 공간 활성화 사례 .....      | 81  |
| 1. 어촌 활성화 사례와 주요내용 .....      | 81  |
| 2. 공간 활성화 사례와 주요내용 .....      | 88  |
| 3. 시사점 .....                  | 93  |
| 제4장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     | 99  |
| 1. 전라북도 어촌 공간 여건 분석 .....     | 99  |
| 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비전과 목표 ..... | 113 |

|                          |         |
|--------------------------|---------|
| 3.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 | 122     |
| <br>제5장 결론 .....         | <br>149 |
| 1. 연구 요약과 기대효과 .....     | 149     |
| 2. 정책제언 .....            | 153     |
| <br>참고문헌 .....           | <br>159 |



## 표 목 차

---

|                                                 |     |
|-------------------------------------------------|-----|
| 〈표 2-1〉 군산시 어촌마을 현황 .....                       | 28  |
| 〈표 2-2〉 김제시 어촌마을 현황 .....                       | 38  |
| 〈표 2-3〉 고창군 어촌마을 현황 .....                       | 41  |
| 〈표 2-4〉 부안군 어촌마을 현황 .....                       | 44  |
| 〈표 2-5〉 전라북도 어촌계 현황 .....                       | 46  |
| 〈표 2-6〉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2015년 기준) .....        | 48  |
| 〈표 2-7〉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의 수상실적 .....                 | 48  |
| 〈표 2-8〉 전라북도 어항현황 .....                         | 51  |
|                                                 |     |
| 〈표 4-1〉 전라북도 소재 예술 관련 전공설치 대학 현황 .....          | 129 |
| 〈표 4-2〉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 집수리, 인테리어, 건물 관리 분야 ..... | 135 |
| 〈표 4-3〉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어촌 공간 활용 종합 .....          | 146 |
|                                                 |     |
| 〈표 5-1〉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어촌 공간 활용방안 종합 .....        | 152 |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1〉 연구흐름도 .....                            | 7   |
| 〈그림 2-1〉 어촌 공간 활용 인과관계도 .....                   | 21  |
| 〈그림 2-2〉 고군산군도 입지 및 주요시설현황 .....                | 29  |
| 〈그림 2-3〉 신시도 어촌마을 .....                         | 30  |
| 〈그림 2-4〉 무녀1구 어촌마을 .....                        | 32  |
| 〈그림 2-5〉 무녀2구 어촌마을 .....                        | 32  |
| 〈그림 2-6〉 선유1구 어촌마을 .....                        | 34  |
| 〈그림 2-7〉 선유3구 어촌마을 .....                        | 36  |
| 〈그림 2-8〉 장자도 어촌마을 .....                         | 37  |
| 〈그림 2-9〉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 관련 분야 .....     | 65  |
| 〈그림 2-10〉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8~2035) 비전체계 ..... | 72  |
| 〈그림 2-11〉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 비전체계 .....                | 73  |
| 〈그림 4-1〉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의 경쟁여건분석 .....            | 104 |
| 〈그림 4-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전략 .....                  | 106 |
| 〈그림 4-3〉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향 .....                  | 112 |
| 〈그림 4-4〉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의 비전과 핵심가치 .....          | 116 |
| 〈그림 4-5〉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목표 .....                  | 117 |
| 〈그림 5-1〉 연구요약 .....                             | 149 |



장

#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 최근 어촌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람 중심의 어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어촌 공간은 해양수산인의 업무공간이며,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어촌은 전통적으로 어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업을 수행하는 공간이자, 어촌 6차 산업화의 기지로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후계자, 젊은 해양수산경영인, 창의적인 벤처 창업가 등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계획 및 정책을 살펴보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 목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추진전략)”, “어업인·거주자 복지, 식품, 어장관리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국정과제 81)”를 추진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어촌 자원은 인적자원과 공간자원으로 구분됨. 인적자원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어업 후계자, 어촌거주자, 귀어촌 창업가 등으로 구성됨. 어촌자연, 어촌문화, 해양역사자원 등 공간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어업 활동 기반의 어촌 6차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어촌관광상품개발 및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어업인 재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여 어가 소득을 높이고, 경영위험을 완화하고자 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2018년 해양수산부는 “어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수산업, 수산식품산업, 어업 외 소득창출과 복지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18)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분권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을 실현함. 우리 바다 되살리기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과 관련성이 높음.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있음(국정과제 84)
- 2018년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추진 방향은 모두 어촌 공간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해양수산업에서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어가 소득 향상(5천만 원 시대)”,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정책 방향이 모두 어촌 공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음(해양수산부, 2018)
- 어촌의 어항 지역은 수산업 기지 임무를 수행하는데 일부 어항의 경우 방치된 어구와 쓰레기 등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해양경관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추진 방향과 모순됨
  - 2018년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낙후된 어항·포구를 재창조하고자 함(해양수산부, 2018)

- 어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 대두되고 있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과거 수산업 기지 역할 중심으로 운영되던 어항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도록 유도하며, 어촌관광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대부분 어촌은 어업인의 생산 작업 공간이며, 최근 어업 외 수입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어촌관광 거점 정도로 활용되고 있음
  - 추진주체는 지리적 여건 상 현재 어촌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어촌 고령화는 과소화와 연계되어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귀어귀촌, 어촌창업 등 트렌드에 맞추어 어촌 본연의 어업, 어촌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희 공간을 활용하여 어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특히, 2017년 수립된 전라북도 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과 해양산업육성계획에 어업과 어촌관광 분야의 어촌 활성화 방안이 다수 도출되었으므로,
  - 해당 과제와 연계성을 가지면서 유희 공간 활용, 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등 지속 발전 가능한 어촌 만들기 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촌 공간 활용은 전통적인 방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의 두 가지 관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방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어항 중심의 해양수산업과 수산물 중심의 어촌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어촌의 기회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어촌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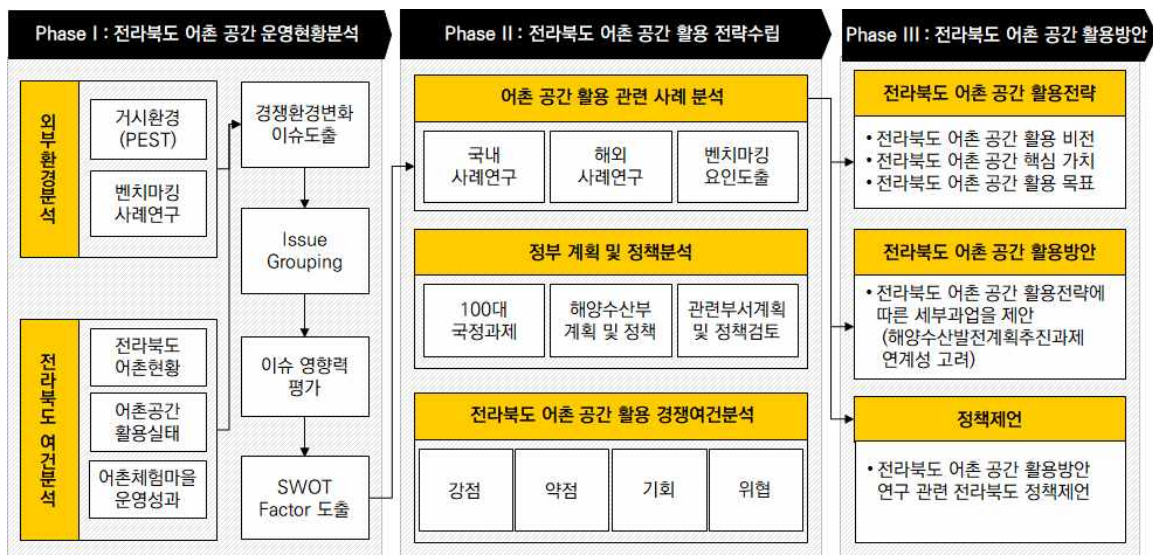
- 정책 방향에 맞추어 어촌 공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업과 어촌체험마을 중심의 부분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어촌 공간을 활성화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수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
  - 해양수산업 지원기지와 거주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복잡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부분 최적화로는 원하는 목표 달성이 어려움
  
- 어촌의 인적 자원과 공간 자원을 전체 최적화하면서 어촌 공간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와 같이 어장, 어항을 수산업의 기지로 활용하고 체험마을 중심의 제한적 운영은 어촌 활성화에 제약요건이 될 것임
  - 어촌의 유허 부지를 활용하여 공간 가치를 향상하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가치 있는 어촌 공간으로 재창조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기간과 인력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공간, 시간, 내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함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어촌\*1)
  - 시간적 범위 : 2019~2023년
  - 내용적 범위
    - 1)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의 핵심목표, 추진전략 구상
    - 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추진과제) 제안
- 어촌은 어장, 어항, 마을, 배후권역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계획」 등 해양수산 관련 사업을 제외한 분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음

〈그림1-1〉 연구흐름도



\*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하천·호수’에 인접한 내수면 어업계도 어촌마을로 볼 수 있으나, 내수면 어업계는 해수면 어촌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음. 과업기간과 범위, 연구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바다’에 인접한 어촌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함

-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제1단계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 운영현황분석 단계임
  - 거시 정치경제환경을 중심으로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여건을 분석하고자, 어촌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음
  -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어촌마을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경쟁 역량을 분석하였음
- 제1단계 전라북도 어촌 공간 운영현황분석을 토대로 경쟁 환경 변화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경쟁여건의 핵심요소를 도출함
- 제2단계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전략수립 단계로 설정함
  - 어촌 공간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였음. 실제 어촌 활성화 사례와 유희 공간 활용사례 등을 조사하여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향 제안에 반영함
  - 정부의 계획과 주요 정책을 검토하여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해양수산부의 주요정책 등을 검토하였음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경쟁여건 분석을 실시하였음. SWOT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전략을 도출함
- 제3단계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제시로 구성함.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전략은 비전, 핵심가치, 목표로 설정하였음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목표에 따른 과업을 활용방안으로 제안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 다. 연구방법

### ○ 문헌조사

- 어촌의 개념, 어촌 활성화 정책 동향
- 정부와 지자체별 관련 연구 동향
- 어촌 활성화, 공간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

### ○ 실태조사

- 전라북도 어촌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과 어촌마을 주요 자원, 시설 등 조사

### ○ 벤치마킹 사례연구

- 어촌 활성화의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연구 시행
- 국내외 벤치마킹 조사는 문헌으로 공유된 자료를 활용할 계획임. 어촌 활성화 담당자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적합한 국내 사례의 경우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함

### ○ 어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

- 국가 차원에서 어촌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함
- 도외 자문위원은 어촌체험 마을 관련 평가 및 자문 수행, 어촌 활성화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함
- 도내 자문위원은 전라북도 어촌 현황을 인식하고 있는 도내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라북도 어촌 현실에 적합한 벤치마킹 요소, 활성화 방안 도출에 도움을 받음

## 2. 선행연구

### 가. 어촌 공간 관련 주요 선행연구

- 어촌 공간 관련 선행연구는 어촌 경관, 어촌 관광, 어촌정주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됨. 경관, 관광, 주거 등 명확한 분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촌 활성화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김대영 외, 2017)
  -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 트렌드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의 정책 방향과 미래 전략을 제안함
  - 어촌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어촌 활력을 높여야 하며, 생산의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김대영 외, 2016)
  - 어촌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촌공동체의 협력·발전 방안을 제안함
  - 현행 어촌계 중심의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어촌공동체 실태자료 축적, 바다마을공동체로 재편 등을 어촌공동체 발전 전략으로 제안함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이승우 외, 2016)
  - 어촌 공동체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정이 어촌 발전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함
  -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 정보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한국어, 문화 등 생활 관련 교육과 어업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간, 어촌거주자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8년 정읍벚꽃축제(2018. 4. 6. ~ 2018. 4. 10.)에서는 다문화가정 부스를

운영하여 일본인이 일본음식을 판매하도록 하여 벚꽃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음

- 어촌 공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 행사에 다문화가정의 참여를 토대로 유대감을 높일 수 있고,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향(이승우 외, 2015)

- 어촌정책을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어촌특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 어촌특화센터는 창업·경영 컨설팅, 연구개발, 사업 관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야 함

○ 어촌 그랜드 디자인 개념정립(박상우 외, 2014)

- 어촌과 어항의 공공디자인으로 어촌 그랜드 디자인의 개념을 제안하고, 어촌·어항·어장의 공간의 문화적, 공공적 가치 향상 방안을 제안함
- “어촌·어항·어장의 공간 환경을 기반으로 문화적·공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창의적 대안 마련과 이를 현실화 시키는 과정”을 어촌 그랜드 디자인 개념으로 제안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촌 그랜드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어촌관광명소를 창출할 수 있음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항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연구(이승우 외, 2011)

- 어항기능시설과 편익시설이 위치할 어항부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을 제안함
- 어항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항 기능의 통합, 수산과 어촌 정책의 통합, 어촌 주변지역과 자원 활용 공간, 어촌 삶의 질 향상의 공간, 아름다운 어촌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

○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이승우 외, 2009)

- 명품 관광어촌의 유형과 기준, 조성방향을 제시하여 관광어촌의 차별화, 어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
- 어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명품 관광어촌 조성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이야기, 브랜드가 있는 명품 관광어촌으로 조성해야 함

○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이승우 외, 2008)

- 어촌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어촌관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어촌관광 정책을 구상함
- 어촌관광 인적자원 계발과 지역브랜드 창출 등을 통하여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 마을이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김성귀 외, 2007)

- 연안과 항만, 어촌에 도시민이 공유할 수 있고, 찾아가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함
- 어촌 인구와 소득 감소, 복지·교육·문화 수준 열세, 어항의 난개발 등 문제점을 파악함. 어촌 경관과 환경 제고, 어촌 문화의 계승, 지역 특화 작업 등이 필요함

## 나. 전라북도 어촌 공간 관련 선행연구

### ○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나정호 외, 2017)

-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특화산업으로 수산식품, 해양레저, 해운항만물류, 미래해양산업 등 4개 산업을 도출하고, 관련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활성화, 연구·지원 분야에 맞추어 33개의 과제를 제안함
- 기반 구축, 활성화, 연구·지원 목적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산업의 육성이며, 어촌 공간의 활성화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승우 외, 2017)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전, 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추진과제 62개 중 핵심추진과제 31개를 제안함

### ○ 전라북도 해양수산 지역현안문제 발굴(전북연구원, 2017)

- 본 연구는 전북씨그랜트센터에서 지역 해양수산 R&D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단계로 전라북도 지역 해양수산 현안을 도출하여 R&D 과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됨
- 해양수산업, 해양생명바이오, 새만금 공간활용, 어촌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서 20개의 전라북도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 문제를 발굴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도출하였고, 해당 문제는 대부분 해양수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어촌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음

## 다. 시사점

- 어촌 공간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개 국책연구기관의 기획연구, 현안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었음
- 어촌 공간의 개념을 연안 어장과 어항, 어촌마을, 배후권역까지 고려해야 하며, 어항은 어장과 어촌을 연계하는 연결점이자, 수산업의 기지로 파급효과가 큼. 어항 활성화 방안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
- 어촌관광이 어업 외 수익원으로 부각되면서 어촌체험마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어촌체험마을은 배후지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의 재방문과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어가 인구의 감소로 귀어 귀촌 등 어가 인구 증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함
  - 어촌 다문화가정이 어촌마을에 거주하며 수산업, 수산식품산업 등에 참여하는 사례를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유입을 연계할 방안 모색이 필요
- 기존 선행연구는 대부분 연구목적에 수산업, 어촌관광 등의 거점으로 어촌 공간을 한정하였음
  - 수산업과 어촌관광을 중심으로 미래 정책 방향을 제안하여, 어촌 공간을 수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음
  - 수산업과 어촌관광이 어촌 공간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어가인구 감소,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인력을 유인하여 어촌 공간에서 다양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장

## 전라북도 어촌현황과 과제

Jeonbuk Institute

- 
1. 국내외 어촌환경변화
  2. 전라북도 어촌 실태조사
  3. 어촌 공간 활용계획과 실천
  4.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과제



## 제 2 장 전라북도 어촌현황과 과제

### 1. 국내외 어촌환경변화

#### 가. 어촌의 개념과 국내외 여건

##### 1) 어촌의 개념

- 어촌(漁村)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민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로 정의하고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6항에서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동(도시지역은 제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함
  - 이노우에 교스케(2016)는 어촌자본주의라는 서적에서 일본 어촌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촌’과 ‘어촌자본주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림
    - 어촌(里海)은 “인공적인 관리를 통해서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연안 해역”으로 정의하고, 어촌자본주의는 “사람이 인공적인 관리를 통해서 바다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의미함(이노우에 교스케, 2016)
  - 어촌의 개념을 공간적 범위로 접근할 수 있음
    - 어촌정책의 추진범위인 ‘어촌마을과 어항, 어장’이지만, 어촌 그랜드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촌마을, 어항, 연안 바다(어장), 어촌 배후지역’을 포괄해야 함(박상우·이호림, 2014)
- 어촌 공간에 대한 합의된 법률적 정의는 없음
  - 어촌 공간이라는 개념은 미시적으로 어촌마을 내 공간(空間)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 어촌마을, 어항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음
  - 박상우·이호림(2014) 연구에서 제안한 그랜드 디자인의 범위로 연안바다와 어촌마을 배후지역까지 확장할 수도 있음

- 정부는 어촌을 단순히 마을 개념에 그치지 않고 수산업의 지원기지, 어촌거주자의 거주공간 외에 해양관광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해양수산부, 2018)
- 어촌 공간을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촌 공간을 “전통적인 어촌마을, 어업 공간인 어항과 연안 바다, 어촌 배후지역을 포괄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정의함

## 2) 어촌 여건 변화

- 어촌 환경변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국내외 주요 이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김대영 외, 2017)
  - 따라서 어촌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더불어 어촌 환경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계식량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로 나타났음
  - 세계식량기구에서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스라밸(Study and Life Balance, 공부와 휴식의 균형)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고, 힐링(Healing), 휴식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주 5일제 정착에 따라 어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가족단위의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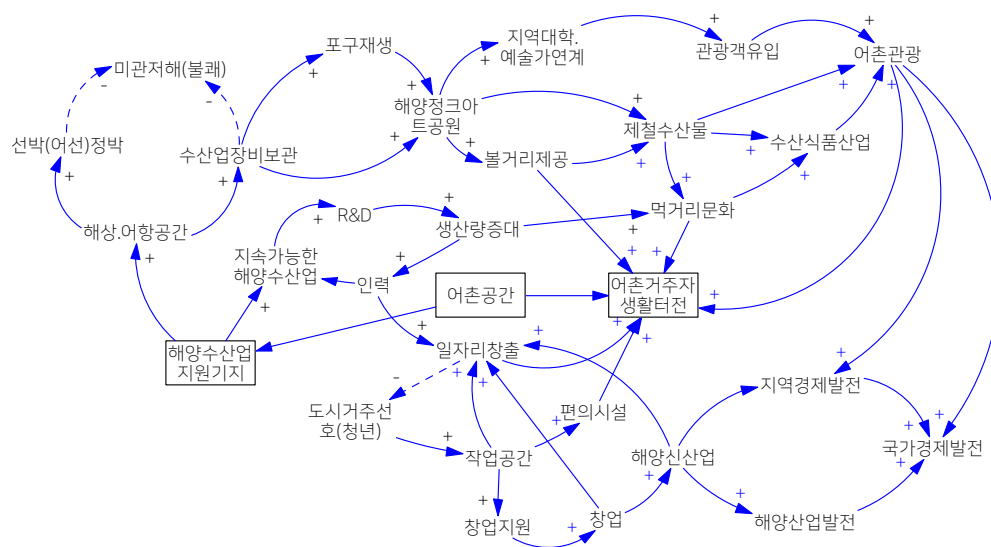
- 어촌 고령화, 어가 인구 감소 등을 대비해야 하며, 한편으로 전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치유관광, 헬스케어산업 등에 대한 수요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정부에서도 해양관광을 세분화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어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어항, 다기능어항 등 어항을 어촌 관광의 중심지로 함. 어항에서 각종 부가가치를 발생시키고자 함
- 어촌관광은 갯바위 낚시, 해수욕장, 트래킹,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요트, 보트 등 수상레저와 해중레저도 궁극적으로 어촌을 기지로 진행하고 있음
- 친환경 관광자원과 생태체험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갯벌복원, 갯벌체험 등 생태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 보유국이며 고창군, 부안군 등 곰소만 일대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임
    -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등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인근에 위치한 어촌체험마을에서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의 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해양 신산업 개척이 요구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어촌 공간에서는 어항 IoT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이승우 외, 2017)
    - 다기능 어항을 지원하고 어항이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 국민의 안전한 어항,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이승우 외, 2017)

## 나. 어촌 공간 활용의 인과관계 분석

-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포레스터(J. W. Forrester)가 산업동태론에서 처음 제안한 방법으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방식을 활용함(김기찬 외, 2007)
  - 사회 현상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한 방향 인과관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인과관계가 형성됨
    - 예를 들면, ‘인구’라는 종속변수는 ‘출생’이라는 독립변수와 ‘사망’이라는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순환적 인과관계는 종속변수(인구)가 출생과 사망이라는 변수에 의해 실시간 변화하는 것을 모형화함
    -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인구 동향 분석에서는 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 육아와 보육수당, 육아 휴가, 보육 지원 등) 등을 추가로 모형에 반영함. 궁극적으로 보육수당이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사회 트렌드와 정부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어촌 공간 활용의 인과관계를 분석함
  - 기본적으로 어촌 공간은 ‘해양수산업 지원기지’역할이 최우선이며, 동시에 ‘어촌 거주자 생활터전’의 역할이 요구됨
- 해양수산업의 전진기지로 어항은 선박정박, 수산업 장비 보관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선박정박과 수산업 장비를 보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간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음
- 선박정박과 수산업 장비 보관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방문자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박정박, 수산업 장비 보관 등 어항이 본연의 기능을 충족하면서 쾌적함을 주는 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함

- 어항의 기본적인 기능은 안전한 어선정박임. 유명 어항의 경우 관광객이 어항 구역을 진입할 수 있는데, 안전한 어선정박을 넘어서 규칙적인 정박, 깃발 등을 활용한 볼거리 제공 등 어항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촌관광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
- 수산업 장비를 보관하는 공간은 관리를 잘 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할 수 있음
- 그물 등 각종 어구의 보관질서를 수립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수산업 작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그림 2-1〉 어촌 공간 활용 인과관계도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8~2022)」에 해양정크아트공원 조성  
이 있음. 어촌작업공간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활  
성화할 계획임(이승우 외, 2017)

- 각종 어구, 장비와 해당 장비로 잡을 수 있는 해양생물을 연계하여 볼거리 제공  
과 동시에 교육적 정보제공도 가능하게 함
- 해양정크아트공원 조성은 어항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역 대학 미

술, 공예전공자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조성할 수 있음

- 전라남도 고흥군 연흥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어촌마을의 볼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폐어구를 활용한 예술작품도 있어 해양정크아트공원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음
- 꽃게, 주꾸미, 바지락 등 지역 특산물의 제철 수산물의 정보를 제공하여 볼거리와 먹거리를 연계할 수 있음
- 부안군 격포항은 꽃게 유통의 집결지 역할을 하는데, 꽃게 철에 꽃게 조형물과 꽃게잡이 어구를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격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꽃게를 먹고 가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어촌 공간 정비를 어촌관광으로 연계하여 지역 거주자의 어업 외 소득증대와 새로운 관광문화를 수립할 수 있음

○ 일부 어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포구를 재생하여 어촌의 볼거리, 체험거리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어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포구이지만 과거 포구를 중심으로 공동의 생활 문화권이 형성되어 지금에 이름
- 어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포구는 어민의 어항에서 시민의 관광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음. 어촌 문화, 어촌 전통과 관련한 주제로 활용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이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 300'을 구상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옛 포구를 오늘의 관점에서 새로 개발하기 보다는 포구 중심의 옛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2017)」에서 전라북도의 집중육성 산업으로 수산식품산업을 선정하였음.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되는 수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함(나정호 외, 2017)

○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술개발이 요구됨. 기술개발을 통하여 과학적인 수산업을 하면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음



- 생산량이 증대될 경우 먹거리 문화로 확산(제철 해산물 축제, 지역 해산물 메뉴 개발 등)시킬 수 있음
- 안정적인 생산량이 확보될 경우 수산식품산업으로 연계 가능성이 있음. 부안군 해삼, 군산시 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에 초점을 맞추어 특화할 수 있음
  - 수산식품산업과 귀어·귀촌은 전라남도 완도군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음. 전라남도 완도군은 민관 공동출자법인 주식회사 완도전복을 설립하여 전복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귀어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청년 일자리 창출, 수산식품 6차 산업화의 좋은 모델임
  - 완도전복 성공사례를 전라북도 어촌에 활용하면 고창군(바지락), 군산시(김), 부안군(해삼) 등 특화시켜 귀어·귀촌, 청년 일자리, 수산식품 6차 산업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음
- 수산식품산업은 수산물을 가공하여 식품화하는 산업으로 기술력과 함께 자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수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의 직·간접적 공간 배경은 어촌임
- 어촌의 공간적 범위는 어장, 어항, 마을, 배후지역을 포함함. 대개 어촌 거주자는 어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해산물과 농산물, 축산물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삼합’은 홍어회, 돼지고기, 김치를 함께 먹는 요리를 의미함. 지역 별 특산물을 결합한 ‘지역삼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적으로 장흥의 한 식당에서 지역 특화 메뉴로 개발한 ‘장흥삼합’은 장흥한우, 표고버섯과 키조개 관자를 함께 먹는 메뉴임. 최초 개발한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축협 한우직판장에서 한우를 사오면, 관자와 표고버섯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흥 특화 메뉴로 자리매김함
- 연구개발 중심의 수산업 발전은 전문 인력의 양성과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함

- 현대 젊은 인력은 편리성,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도시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해양산업의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있음
- 도시거주를 선호하지만 해양산업 종사를 위하여 어촌 공간에 협업 공간 (Co-Working space)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자녀를 중심으로 어촌 공간에서 출퇴근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동남아 휴양지 중심으로 협업 공간이 인기를 끌고 있음. 단기 프로젝트, 혹은 프로젝트 중 휴가를 즐기기 위한 젊은 층의 수요가 있음. 전라북도형 해양 협업공간을 시범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 기반으로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어촌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의 신규 수요 창출도 가능함
  - 해양 신산업 육성의 정부 정책 취지와 부합하여 어촌 공간에서 신규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음(해양산업, 연관 산업, 기타 해양산업과 무관한 사업 창업 등 여러 모로 해양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어촌 공간에서 해양산업 창업,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입주하여 거주자의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있음
  - 해양 신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어촌거주자에게 일자리 창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음
- 어촌 공간을 구체적으로 해양수산업의 지원기지, 어촌관광의 거점,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거점, 어촌거주자 정주 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연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그림 2-1>에서 정리한 어촌 공간 활용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전체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라북도 4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의 특색 있는 테마 어촌 공간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2. 전라북도 어촌 실태조사

- 전라북도의 해안선은 전국 해안선 14,962.8km의 약 3.6%(548.5km)임. 도서 해안선은 299.5km이며, 육상 해안선은 249.0km임
  - 군산시 해안선은 276.4km로 도내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함. 부안군 해안선은 167.0km, 고창군 해안선은 88.2km임. 김제시 해안선은 10.5km임(전라북도, 2017)
- 전라북도에 위치한 도서는 총 94개(전국 3,354개)이며 군산시 55개, 부안군 35개, 고창군 4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음(전라북도, 2017)
  - 유인도 19개, 무인도 75개 등 총 94개의 도서가 전라북도에 있음
- 고창군과 부안군 중심으로 형성된 연안습지는 랍사르 습지에 등록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17년에는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
-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의 어촌을 구성하는 어촌마을과 어항 중심으로 현황 조사를 시행하였음
  - 어촌마을은 마을 단위의 현황과 어촌계, 어촌체험마을, 어촌특화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어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 법규에 따라 다양한 어항이 존재하지만, 본 과업은 전라북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어촌 공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조사 범위를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으로 한정하였음

## 가. 전라북도 어촌마을현황

### 1) 어촌마을 현황

- 어촌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공간으로 어촌마을이 있음. 어촌마을은 전라북도 4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에 걸쳐서 총 46개의 마을이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과와 시·군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전라북도 어촌마을 현황을 조사하였음

### 가) 군산시

-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인근의 섬 중심으로 어촌마을이 형성됨. 개야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방축도, 말도, 명도, 비안도 등 총 13개의 어촌마을이 있음
- 개야도마을은 인구 345명(어가 인구 300명)이며, 개야도 항, 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개야도 해수욕장, 마을 당산, 갯벌체험, 선상 낚시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연도마을은 인구 84명(어가 인구 70명)이며, 연도 국가 어항, 연도 생태 산림, 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대봉산, 선상 낚시, 마을 당산, 연도등대, 연도방파제, 연도 해수욕장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어청도마을은 인구 192명(어가 인구 104명)이며, 어청도 국가 어항, 어청소만, 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어청도 등대, 선상낚시, 어청도 차동묘제, 해안데크길, 봉수대, 조류탐방, 고래잡이 포구, 산신제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야미도 마을은 인구 104명(어가 인구 62명)이며, 야미도 항, 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고군산군도 유람선 운항, 선상 낚시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신시도마을은 인구 140명(어가 인구 93명)이며, 신시항, 어촌체험마을, 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새만금방조제 중심에 있으며 선상, 갯바위 낚시 관광, 갯벌체험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선유도마을은 인구 274명(어가 인구 200명)이며, 선유도항, 어촌체험마을, 수산자원, 해수 담수화 시설, 섬 지역 등산로(자생식물), 선유대교, 장자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선유도해수욕장, 선유팔경, 고군산 연결도로, 수군진터/초분단지, 충무공 이순신과 선유도, 오룡묘(오룡묘 당제), 선유도 진말 비석군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무녀도마을은 인구 208명(어가 인구 155명)이며, 무녀도 항, 초분, 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몽돌 해안, 모감주나무군락지(천연기념물), 무녀도 야영장, 무녀도 패총, 갈대습지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장자도 마을은 인구 87명(어가 인구 50명)이며, 장자도항, 어촌체험마을, 수산자원, 해상낚시공원(조성 중)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선상 낚시, 갯벌체험, 가두리 낚시터 체험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관리도마을은 인구 51명(어가 인구 50명)이며, 관리도 항, 수산자원, 만물상 바위, 천공굴, 중바위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관리도 서해낙조 전망대, 관리도 해수욕장, 만물상 바위, 천공굴, 투구봉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방축도마을은 인구 77명(어가 인구 70명)이며, 방축도 항, 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선상 낚시, 갯바위 낚시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말도마을은 인구 40명(어가 인구 30명)이며, 말도 항, 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말도전망대, 갯바위 낚시, 독립문바위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표 2-1〉 군산시 어촌마을 현황

| 마을 명 | 인구(어가인구)   | 마을자원                                                    |
|------|------------|---------------------------------------------------------|
| 개야도  | 345명(300명) | 개야도항, 수산자원 등                                            |
| 연도   | 84명(70명)   | 연도국가어항, 연도 생태 산림, 수산자원 등                                |
| 어청도  | 192명(104명) | 어청도국가어항, 어청소만, 수산자원 등                                   |
| 야미도  | 104명(62명)  | 야미도항, 수산자원 등                                            |
| 신시도  | 140명(93명)  | 신시항, 어촌체험마을, 수산자원 등                                     |
| 선유도  | 274명(200명) | 선유도항, 어촌체험마을, 수산자원, 해수담수화시설, 섬지역등산로(자생식물), 선유대교 및 장자교 등 |
| 무녀도  | 208명(155명) | 무녀도항, 초분, 수산자원 등                                        |
| 장자도  | 87명(50명)   | 장자도항, 어촌체험마을, 수산자원, 해상낚시공원(조성 중) 등                      |
| 관리도  | 51명(50명)   | 관리도항, 수산자원, 만물상바위, 천공굴, 중바위 등                           |
| 방축도  | 77명(70명)   | 방축도항, 수산자원 등                                            |
| 말도   | 40명(30명)   | 말도항, 수산자원 등                                             |
| 명도   | 35명(20명)   | 명도항, 수산자원 등                                             |
| 비안도  | 148명(100명) | 비안도항, 수산자원, 구례샘, 중산 등                                   |

주) 2018년 3월 조사 기준임

- 명도마을은 인구 35명(어가 인구 20명)이며, 명도 항, 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선상 낚시, 갯바위 낚시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비안도마을은 인구 148명(어가 인구 100명)이며, 비안도 항, 수산자원, 구례샘, 중산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선상 낚시, 갯바위 낚시, 비안도몽돌해수욕장, 꼬꼬당바위, 길마재, 절골, 서단목, 만금정(비안도 낙조대) 등의 특화요소가 있음

○ 고군산 연결도로의 완전개통으로 과거 섬이었던 고군산군도(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새로운 시각의 어촌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음

- 고군산군도는 전통적인 섬 어촌마을로 연결도로 개통으로 섬 특유의 문화를 보유하면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그림 2-2〉 고군산군도 입지 및 주요시설현황



자료 :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tour>, 접속일 : 2017. 12. 5.)

## □ 신시도(新侍島)

- 고군산군도 첫 어촌마을로 모든 방문자가 거쳐 가는 곳으로 입지 여건이 좋음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일부 개통으로 어촌체험마을 운영이 잘 되고 있음
  - 날씨가 좋은 시기에는 주말에만 2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학교 단체 방문사례도 있음
- 어촌체험마을에서 갯벌체험, 선상낚시 체험, 개막이체험, 독살체험, 먹거리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개막이 체험은 치어보호를 위해 휴식기(약 90일)를 설정함. 2017년은 어촌체험마을 사정 상 운영하지 못했으나,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재개하고자 함

- 어촌체험마을 사무실, 주차장은 신시도 입구에 있는데 어촌체험장까지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체험장에 안내소를 설치하여 어촌체험에 필요한 용품을 대여하고 안내하고 있음

〈그림 2-3〉 신시도 어촌마을



- 신시도 주민 대다수는 김 양식과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음
  - 주민 인터뷰 결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싶으나, 주차 공간 부족과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거주민은 항포구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은 반면 관광 인프라가 없어서 체류형 관광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 어촌마을 특성상 협소한 마을 도로와 어구적재,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정비가 필요함. 군산시에서 2018년부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이용하여 청소차량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신시도 도민의 날을 약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어촌주민간 결속력이 좋음
- 어촌마을 이야깃거리로는 최치원과 전간재 선생, 정감록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음
  - 신라시대 최치원이 신시도 대각산 월영대에 단을 만들고 글을 읽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 전간재 선생(艮齋 田愚, 1841~1922)은 전주시 청석동 출생으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908년 부안군 위도 서쪽 왕등도에 들어갔다가 고군산을 거쳐 부안군 계화도에 은신함. 신시도는 전간재 선생이 흥학계를 조직해서 한학을 가르쳤던 섬으로 전해옴
  - 정감록은 삼국시대부터 전승되어온 예언서로 ‘퇴조(退潮) 300리 설’은 수도가 송악에서 한양, 계룡산, 가야산을 거쳐 고군산군도가 천년 도읍지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경관자원으로 월영봉이 유명함. 월영봉 정상에서 고군산군도를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월영봉을 찾고 있음

#### □ 무녀도(巫女島) - 무녀1구, 무녀2구

- 무녀도는 무녀1구, 무녀2구 등 2개의 어촌마을이 형성되어 있음. 섬의 형태가 춤을 추는 무당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무녀도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짐
- 관광자원으로 천연 갈대습지, 염전체험, 몽돌해수욕장, 무녀봉이 있음. 바지락, 굴 등 갯벌체험이 가능함. 무녀1구와 2구 마을을 연결하면 해돋이, 해넘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경관을 보유하고 있음

- 2018년부터 야영장을 운영할 계획임. 야영장은 군산시가 조성하여 무녀1구 마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4〉 무녀1구 어촌마을



〈그림 2-5〉 무녀2구 어촌마을



○ 주민 인터뷰 결과, 무녀도 주민은 전통적으로 김 양식과 어선어업을 주 소

득원으로 했으나 어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 창출 방안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창출을 희망하고 있음

- 섬 부지의 대부분을 비거주자가 소유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시 거주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무녀2구는 무녀도를 구성하는 두 번째 마을로 어민후계자가 어업을 지속하고 있는 어업중심마을임

-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어 수산물 체험, 판매 등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자연산 바지락, 자연산 굴 등 생산이 가능한 갯벌과 동섬(바위섬), 해돋이 명소로 유명함. 전통적인 어촌을 경험할 수 있는 경관자원을 보유함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모감주나무 군락지, 무녀도 몽돌 해안, 초분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모감주나무 군락지의 경우 몇 그루 남아 있지 않아서 군락지로 보기 힘들
- 초분은 섬 지역 전통 장례풍속 전통으로 후손들이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로 현재 남아 있지 않음
- 당제를 지내는 장소가 있었으나, 기독교 유입으로 당제 지내는 전통이 사라짐

○ 무녀도의 경우 제철 수산물로 먹거리에 경쟁력이 있음. 간장게장, 바지락, 꽃게 요리 등이 유명함

#### □ 선유도(仙遊島) - 선유1구, 선유2구, 선유3구

○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대표적인 섬으로 선유봉의 형태가 두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선유도(仙遊島)라는 이름이 붙었음

〈그림 2-6〉 선유1구 어촌마을



- 관광자원으로는 망주폭포, 명사십리, 평사낙안, 삼도귀범, 장자어화, 무산 십이봉, 월영단풍, 선유낙조 등 선유팔경이 유명함
  - 선유도 해수욕장, 망주봉, 선유대교 등이 유명함
  - 역사자원으로 충무공 이순신이 명량해전 후 선유도를 방문한 기록이 있음
- 선유도는 선유1구, 선유2구, 선유3구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유2구는 상가, 식당, 숙박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고 선유1구와 선유3구는 어업 중심 마을임
- 선유1구 마을은 해안 데크길과 돌담집, 옥돌해수욕장, 연리지 나무 등 어촌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둘레길과 데크길, 옥돌해수욕장 등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걷기 좋은 어촌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전통적인 어업을 하던 어촌마을이라 낚시 배를 소유하고 있으며, 어촌 생활 경험을 가진 어르신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
  - 마을 거주민은 전통 어업보다 민박과 같이 관광 사업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선유1구 주민 인터뷰 결과 전통적인 어촌마을로 마을 어르신을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와 허가권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음
- 바닷물에 배추절임을 하여 김장을 담그는 독특한 김장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먹거리 문화를 특화시키고자 함
  - 현행 법규 상 민박 허가를 받은 경우 아침식사 제공은 가능하지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할 수 없음
  - 2018년 1월 기준 선유1구의 경우 1개소만 식당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임
- 선유2구는 선유도의 대표적인 관광 중심지이자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마을임. 선유도 해수욕장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대표적인 경관자원으로 선유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짚라인, 자전거 등 즐길 거리와 먹거리 등이 밀집해 있음
  - 역사적 유적, 이야깃거리에 대한 보존이 필요함
- 2017년 12월 군산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구역도 선유2구의 불법건축물이었음
  - 원주민과 외지인 간 갈등이 잠재해 있음
  - 도서 특성 상 불법건축물, 공유수면무단 점용 등이 관리되지 않았으나,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완전개통으로 인하여 정비 및 관리가 가능해짐

- 선유3구 마을은 고군산군도의 대표적인 경관인 망주봉 아래 위치하고 있음. 주민 다수가 김양식과 어선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증가하여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음
  - 어촌체험마을과 수산물 경매센터 등을 활용하여 관광 수요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림 2-7〉 선유3구 어촌마을



## □ 장자도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마지막 종점으로 고군산군도 어촌마을 중 가장 작지만, 어촌 특유의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힘이 센 장사가 나왔다고 하여 장자도라 불리게 됨
  - 장자 할머니 바위, 장자 할아버지 바위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 장자도, 대장도, 선유도를 연결하는 장자대교로 교통편의성이 높아졌으며, 대장도의 10여 채로 구성된 펜션단지 중심으로 숙박업이 발달하고 있음
  - 마을주민 대다수는 김 양식과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음
  - 마을주민이 보유한 섬 생활용품을 전시하는 “섬 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하여 관

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 “섬 생활사 박물관”은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사업으로 제안됨. 섬 생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장자도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안된 과업임. 섬 특유의 전통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과 교육자원으로 가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이승우 외, 2017)

〈그림 2-8〉 장자도 어촌마을



○ 기반 인프라, 쓰레기 처리 등 문제 해결이 필요함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종착점으로 차량회차와 주차 등 교통기반시설 보완이 필요함
- 마을도로 및 어구적재, 쓰레기로 인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2018년 이후 군산시에서 청소차량 운행하여 대응할 계획이 있음

〈표 2-2〉 김제시 어촌마을 현황

| 마을 명 | 인구(어가인구) | 마을자원                       |
|------|----------|----------------------------|
| 심포   | 164(47)  | 새만금호 주변 자원 등, 새만금호 내부 경관 등 |
| 명동   | 43(25)   | 새만금호 주변 자원(망해사) 등          |
| 거전   | 118(59)  | 새만금호 주변 자원 등               |
| 안하   | 140(122) | 새만금호 주변 자원 등               |

주) 2018년 3월 조사 기준임

## 나) 김제시

○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어항이 없어지면서 4개의 어촌마을만 존재하는 상황임. 심포마을, 명동마을, 거전마을, 안하마을 등 4개 마을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심포마을은 인구 164명(어가 인구 47명)이며, 새만금호 주변 자원, 내부경관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새만금호를 활용한 테마마을 조성, 舊심포항을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어촌개발,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개발 가능성, 유람선 운항 등 마리나 관광의 특화 요소를 가지고 있음
- 명동마을은 인구 43명, 어가 인구 25명으로 새만금호 주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망해사의 낙조가 유명하며, 새만금 바람길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망해사 낙조, 바람길 등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어촌 관광 특화가 가능함
- 거전마을은 인구 118명, 어가 인구 59명으로 새만금호 주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새만금 수목원을 연계한 테마관광을 특화할 수 있으나, 현재 미개발 상황임
- 안하마을은 인구 140명, 어가 인구 122명으로 새만금호 주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새만금호 마리나 관광을 연계한 관광 기반 조성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음

## 다) 고창군

○ 고창군은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흥덕면, 부안면 중심으로 총 15개의 어



촌마을이 있음. 고창군 상하면은 장호마을, 구시포마을, 자룡마을 등 3개 마을이 있음

- 장호마을은 인구 350명(어가 인구 66명)이며, 구시포항, 구시포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공음정보리밭, 선운사도립공원, 장호어촌체험마을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로는 갯벌체험(조개 캐기, 후릿그물 체험, 승마체험) 등이 있음

- 구시포마을은 인구 150명(어가 인구 94명)이며, 구시포 항 어선, 꽃게, 주꾸미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로는 유람선, 낚시 어선 등이 있음

- 자룡마을은 인구 120명(어가 인구 40명)이며, 구시포 항, 노랑조개, 백합, 동죽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갯벌체험이 있음

○ 고창군 해리면은 동호마을과 광승 마을 등 2개 마을이 있음

- 동호마을은 인구 416명(어가 인구 210명)이며, 동호해수욕장, 동호 항, 동죽, 새우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갯벌체험, 낚시터 조성, 새우젓 특화상품 개발 등이 있음

- 광승마을은 인구 329명(어가 인구 88명)이며, 해안도로, 어촌종합센터, 바닷가 용출수 고양이 뿔, 소규모 어선, 주꾸미, 꽃게, 우럭, 광어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바다낚시 어선 운영이 있음

○ 고창군 심원면은 두어 마을과 만돌 마을, 하전마을, 월산마을 등 2개 마을이 있음

- 용기마을은 인구 175명(어가 인구 82명)이며, 좌치나루터, 선운산 도립공원, 북분자, 지주식 김, 가무락, 바지락, 풍천장어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선운산도립공원, 좌치나루터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개발,

지역특산물 판매, 로컬 푸드 체험장 등이 있음

- 두어 마을은 인구 110명(어가 인구 10명)이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갯벌식물원, 람사르 갯벌센터, 복분자, 김, 풍천장어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갯벌식물원 등과 연계한 관광개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6차 산업화 등이 있음
- 만돌 마을은 인구 453명(어가 인구 317명)이며, 갯벌체험장, 염전, 대죽도, 소죽도, 계명산, 지주식 김, 동죽 등 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염전 체험장 및 갯벌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역특산물 판매, 로컬 푸드 체험장, 소죽도 전망대, 계명산 초화류 식재 등이 있음
- 하전마을은 인구 494명(어가 인구 212명)이며, 갯벌체험장, 바지락 양식, 양어장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6차 산업화, 갯벌 체험장, 갯벌축제, 바지락 축제, 풍어제 등이 있음
- 월산마을은 인구 424명(어가 인구 80명)이며, 자연체험관, 자연 전시관, 바지락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보은염 행사, 진채선 생가 터 등이 있음
  - \* 보은염 행사는 선운문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백제 위덕왕 24년(577년)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스님에게 소금 제조법을 배운 마을 주민이 보답하기 위해 봄, 가을에 소금을 절에 바쳤던 설화를 바탕으로 재현하고 있음

#### ○ 고창군 흥덕면에는 사포마을이 있음

- 사포마을은 인구 35명(어가 인구 20명)이며, 후포만, 천연 암반 해수탕, 만정 김소희 생가 터, 자전거 도로, 갈곡천 주변 유물 산포지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후포만과 갈곡천을 연계한 자전거 도로 활성화, 김소희 생가와 해수탕을 이용한 관광특화, 목우, 사포, 후포, 후서 등을 잇는 해안 마실 길 조성 등이 있음
  - \* 자전거 도로는 2017년 국책사업발굴포럼 해양·항만분과에서 제안한 “삼락행복 고평소만 조성”에 일부 포함된 내용임

〈표 2-3〉 고창군 어촌마을 현황

| 마을 명 | 인구(어가인구)   | 마을자원                                                       |
|------|------------|------------------------------------------------------------|
| 장호   | 350명(66명)  | 구시포항, 구시포 해수욕장, 동호 해수욕장, 공음 청보리밭, 선운사도립공원, 장호 어촌체험마을       |
| 구시포  | 150명(94명)  | 구시포항 어선, 꽃게, 주꾸미                                           |
| 자룡   | 120명(40명)  | 구시포항, 노랑조개, 백합, 동죽 등                                       |
| 동호   | 416명(210명) | 동호 해수욕장, 동호항, 동죽, 새우 등                                     |
| 광승   | 329명(88명)  | 해안도로, 어촌 종합센터, 바닷가 용출수 고양이 뿔, 소규모 어선 업, 주꾸미, 꽃게, 우럭, 광어, 등 |
| 용기   | 175명(82명)  | 좌치나루터, 선운산도립공원, 복분자, 지주식 김, 가무락, 바지락, 풍천장어 등               |
| 두어   | 110명(10명)  |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갯벌식물원, 람사르갯벌센터, 복분자, 김, 풍천장어 등               |
| 만돌   | 453명(317명) | 갯벌체험장, 염전, 대죽도, 소죽도, 계명산, 지주식 김, 동죽 등                      |
| 하전   | 494명(212명) | 갯벌체험장, 바지락 양식, 양어장                                         |
| 월산   | 424명(80명)  | 자염체험관, 자염 전시관, 바지락                                         |
| 사포   | 35명(20명)   | 후포만, 천연 암반 해수탕, 만정 김소희 생가 터, 자전거 도로, 갈곡천 주변 유물 산포지 등       |
| 반월   | 64명(21명)   | 양식장                                                        |
| 상포   | 97명(43명)   | 축제식 양식장, 패류 양식장                                            |
| 고잔   | 81명(30명)   | 없음                                                         |
| 죽도   | 54명(24명)   | 패류 어업                                                      |

주) 2018년 3월 조사 기준임

○ 고창군 부안면은 반월마을과 상포마을, 고잔마을, 죽도마을 등 4개의 어촌 마을이 있음

- 반월마을은 인구 64명(어가 인구 21명)이며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음
- 상포마을은 인구 97명(어가 인구 43명)이며 축제식 양식장과 패류 양식장 등을 보유하고 있음
- 고잔마을은 인구 81명(어가 인구 30명)이며 특별한 마을 자원이 없음
- 죽도마을은 인구 54명(어가 인구 24명)이며 패류 어업을 주로 하고 있음

## 라) 부안군

- 부안군은 진서면, 변산면, 위도면 중심으로 총 14개의 어촌마을이 있음.  
진서면은 곰소마을과 왕포, 작당마을이 있음
  - 곰소마을은 인구 1,000명(어가 인구 350명)이며, 곰소항, 옛항구거리, 건어물 판매거리,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센터, 갯벌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곰소 옛 항구거리가 보존되어 옛날 정취 만끽할 수 있으며, 젓갈, 건어물 상가 등을 잇는 해안 마실 길이 있음. 곰소 젓갈 축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왕포·작당마을은 인구 170명(어가 인구 100명)이며, 왕포항, 작당항, 축제식양식장, 갯벌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해안경관, 빨간 지붕으로 통일한 마을 경관, 낚시 어선을 이용한 선상 낚시, 패류양식장과 갯벌 활용이 가능함
- 부안군 변산면은 격상·격하·죽막마을, 궁항마을, 두포마을, 모항마을, 송포마을, 성천마을 등 6개의 어촌마을이 있음
  - 격상·격하·죽막마을은 인구 700명(어가 인구 400명)이며, 격포항, 요트계류장, 채석강, 적벽강, 수성당, 대명리조트, 영상테마파크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국가명승지, 지질공원 등 해안절경과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낚시 어선 등 해양레포츠 자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이 있음
  - 궁항마을은 인구 160명(어가 인구 120명)이며, 궁항항, 개섬 낚시터, 요트장, 불멸의 이순신 촬영세트장, 펜션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해안절경, 전라북도 요트협회 주도의 요트교육, 선상 낚시, 갯바위 낚시 체험 등이 있음
  - 두포마을은 인구 140명(어가 인구 90명)이며, 두포항, 상록해수욕장, 갯벌체험장, 농협 연수원, 펜션단지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상록해수욕장, 갯벌체험장, 펜션단지 등이 있음
  - 모항마을은 인구 220명(어가 인구 150명)이며, 모항항, 모항해수욕장, 갯벌체험장, 갯바위 낚시터, 해나루 호텔, 펜션단지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모항해수욕장, 갯벌체험장, 갯바위 낚시터, 펜션단지 등이 있음
  - 송포마을은 인구 165명(어가 인구 110명)이며, 송포항, 변산 해수욕장,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간척전시관, 교육청연수원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변산 해수욕장, 마실 길(해안누리길) 시점, 새만금 방조제 연계 등이 있음
  - 성천마을은 인구 180명(어가 인구 130명)이며, 성천항, 고사포해수욕장, 하섬, 원광대수련원, 해안일주도로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고사포해수욕장, 젓갈 제조,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등이 있음
- 부안군 위도면은 진리·파장금마을, 벌금·정금마을, 치도마을, 대리·전막·거륵 마을, 식도, 상왕등도·하왕등도 등 6개의 어촌마을이 있음
- 진리·파장금마을은 인구 210명(어가 인구 140명)이며, 위도항, 진리항, 위도 관아, 내원암, 등산로, 옛 항구 거리, 서해 횡리 호 위령탑, 갯벌 양식장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등산로 정비, 갯바위 낚시, 선상 낚시, 갯벌 양식장 체험 등이 있음
  - 벌금·정금마을은 인구 140명(어가 인구 80명)이며, 벌금항, 벌금해수욕장, 정금 다리, 펜션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벌금해수욕장 운영, 갯바위 낚시, 선상 낚시, 갯벌 양식장 체험 등이 있음
  - 치도마을은 인구 200명(어가 인구 120명)이며, 치도항, 갯벌 양식장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마을 앞 판치도가 있어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굴과 바지락 생산 등 풍부한 먹거리, 갯벌 양식장 체험 등이 있음
  - 대리·전막·거륵 마을은 인구 270명(어가 인구 160명)이며, 대리항, 전막항, 띠뱃놀이 전수관, 갯벌 양식장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위도 띠뱃놀이 행사개최, 전수교육, 위도 남단 등대, 해안 절

- 경, 상사화 단지, 갯벌 체험장 등이 있음
- 식도마을은 인구 190명(어가 인구 140명)이며, 식도항, 멸치 가공시설, 바다 낚시시설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멸치 건조·가공, 갯바위 낚시, 선상 낚시 등이 있음
  - 상왕등도·하왕등도마을은 인구 60명(어가 인구 40명)이며, 상왕등도항, 하왕등도항, 해안가 기암괴석, 영해기점 표지석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마을 특화요소는 갯바위 낚시, 선상 낚시, 해안절벽, 기암괴석, 영해기점 표지석 탐방 등이 있음

〈표 2-4〉 부안군 어촌마을 현황

| 마을 명      | 인구(어가인구)     | 마을자원                                                  |
|-----------|--------------|-------------------------------------------------------|
| 곰소1~5구    | 1,000명(350명) | 곰소항, 옛항구거리, 건어물 판매거리,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센터, 갯벌 등           |
| 왕포·작당     | 170명(100명)   | 왕포항, 작당항, 축제식양식장, 갯벌 등                                |
| 격상·격하·죽막  | 700명(400명)   | 격포항, 요트계류장, 채석강, 적벽강, 수성당, 대명리조트, 영상테마파크              |
| 궁항        | 160명(120명)   | 궁항항, 개섬 낚시터, 요트장,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펜션                     |
| 두포        | 140명(90명)    | 두포항, 상록해수욕장, 갯벌체험장, 농협 연수원, 펜션단지                      |
| 모항        | 220명(150명)   | 모항항, 모항해수욕장, 갯벌체험장, 갯바위 낚시터, 해나루호텔, 펜션단지 등            |
| 송포        | 165명(110명)   | 송포항, 변산 해수욕장, 새만금방조제, 새만금간척전시관, 교육청 연수원 등             |
| 성천        | 180명(130명)   | 성천항, 고사포해수욕장, 하섬, 원광대수련원, 해안일주도로                      |
| 진리·파장금    | 210명(140명)   | 위도항, 진리항, 위도 관아, 내원암, 등산로, 옛항구거리, 서해웨이호 위령탑, 갯벌 양식장 등 |
| 별금·정금     | 140명(80명)    | 별금항, 별금해수욕장, 정금다리, 펜션 등                               |
| 치도        | 200명(120명)   | 치도항, 갯벌 양식장 등                                         |
| 대리·전막·거륜  | 270명(160명)   | 대리항, 전막항, 띠벓놀이 전수관, 갯벌 양식장 등                          |
| 식도        | 190명(140명)   | 식도항, 멸치 가공시설, 바다 낚시시설 등                               |
| 상왕등도·하왕등도 | 60명(40명)     | 상왕등도항, 하왕등도항, 해안 기암괴석, 영해기점 표지석 등                     |

주) 2018년 3월 조사 기준임

## 2) 어촌계 현황

-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 수협에서 제공하는 어촌계(漁村契)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에는 총 64개의 어촌계가 있음
  - 군산시 20개소(2,420명), 김제시 12개소(808명), 고창군 13개소(726명), 부안군 19개소(2,697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 ※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계는 총 69개소(1,074명)가 있음. 진안군 22개소, 부안군 15개소, 고창군 9개소, 김제시·임실군 각 6개소, 완주군 5개소, 무주군 3개소, 군산시·익산시·남원시 각 1개소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전라북도, 2017)

〈표 2-5〉 전라북도 어촌계 현황

| 구분 \ 연도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어 촌 계           |           |        | 64      | 64      | 64      | 64      | 64      |
| 가구(호)           | 전체        |        | 36,176  | 35,641  | 34,378  | 34,344  | 34,318  |
|                 | 어가        |        | 8,914   | 9,791   | 9,322   | 8,906   | 8,857   |
| 인구(명)           | 전체        |        | 169,201 | 167,561 | 167,378 | 167,142 | 167,183 |
|                 | 어가        |        | 14,738  | 15,413  | 16,004  | 15,076  | 15,141  |
| 종사유형<br>(개소)    | 어 선 어 업   |        | 26      | 25      | 27      | 37      | 37      |
|                 | 양 식 어 업   |        | 12      | 7       | 7       | 6       | 6       |
|                 | 복 합 어 업   |        | 26      | 32      | 30      | 21      | 21      |
| 구성원수<br>(명)     | 계 원       | 계      | 7,811   | 7,601   | 6,952   | 6,758   | 6,746   |
|                 |           | 전업     | 2,889   | 3,384   | 3,168   | 3,120   | 2,976   |
|                 |           | 겸업     | 4,226   | 3,960   | 3,605   | 3,629   | 3,762   |
|                 |           | 피용     | 696     | 257     | 179     | 9       | 8       |
|                 | 준계원       |        | 2,038   | 1,069   | 991     | 590     | 179     |
| 자연부락수(개소)       |           |        | 267     | 285     | 312     | 312     | 313     |
| 어촌계 평균소득(천원/가구) |           |        | 27,459  | 29,186  | 25,537  | 26,036  | 27,396  |
| 어업권<br>현 황      | 정치망       | 건수     | 107     | 16      | 21      | 21      | 21      |
|                 |           | 면적(ha) | 133     | 86      | 91      | 101     | 101     |
|                 | 해조류양식     | 건수     | 70      | 56      | 57      | 54      | 54      |
|                 |           | 면적(ha) | 3,955   | 3,934   | 3,414   | 3,678   | 3,678   |
|                 | 패류양식      | 건수     | 187     | 151     | 169     | 186     | 186     |
|                 |           | 면적(ha) | 1,575   | 1,276   | 2,145   | 2,253   | 2,253   |
|                 | 어류등양식     | 건수     | 38      | 24      | 24      | 27      | 27      |
|                 |           | 면적(ha) | 316     | 232     | 232     | 323     | 323     |
|                 | 복합양식      | 건수     | 22      | 6       | 1       | 7       | 7       |
|                 |           | 면적(ha) | 31      | 70      | 20      | 356     | 356     |
|                 | 협동양식      | 건수     | 5       | 1       | 6       | 1       | 1       |
|                 |           | 면적(ha) | 50      | 8       | 58      | 8       | 8       |
|                 | 마을어업      | 건수     | 81      | 88      | 102     | 113     | 113     |
|                 |           | 면적(ha) | 1,123   | 1,336   | 1,411   | 1,584   | 1,584   |
| 생산실적            | 중 량(M/T)  |        | 56,236  | 25,703  | 31,058  | 30,820  | 24,844  |
|                 | 금 액(백만 원) |        | 35,775  | 60,849  | 91,337  | 86,352  | 76,749  |
| 어선세력<br>(척)     | 동력        |        | 2,573   | 2,768   | 2,648   | 2,719   | 2,686   |
|                 | 무동력       |        | 439     | 388     | 181     | 162     | 163     |
| 공동시설            | 회관(동)     |        | 64      | 62      | 57      | 62      | 62      |
|                 | 공동창고(동)   |        | 32      | 23      | 20      | 22      | 52      |
|                 | 방파제(개)    |        | 68      | 72      | 71      | 74      | 74      |
|                 | 관리선(척)    |        | 277     | 121     | 178     | 12      | 12      |
|                 | 기 타       |        | 12      | 15      | 16      | 9       | 9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년도



### 3) 전라북도 어촌특화·체험마을 현황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어촌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특화발전을 “어촌 6차 산업화”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음(어촌 6차 산업 홈페이지, 2017).
  - 전국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를 받아 1단계(2014~2015) 5개 마을, 2단계(2016~2018) 5개 마을을 선정하여, 특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어촌특화는 특화어촌 공동체가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함(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 2조 제3호)
- 고창군 두어 마을이 2단계 어촌 6차산업화 마을로 선정됨
  - 고창 두어 마을은 가무락과 장어 생산(1차)을 특화하고, 장어엑기스로 제조·가공(2차)하여 판매하고, 요리체험학습장, 마을브랜드 개발 등(3차)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은 2015년 기준 7개소(전국 106개소)임
  - 어촌체험마을은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같은 하드웨어 구축과 홍보, 컨설팅, 주민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지원 등으로 이루어짐
  - 어촌체험마을 운영목적은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있음
    - 대부분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어촌체험을 시작하기 전 어업에만 종사했을 때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협회, 2014)

〈표 2-6〉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2015년 기준)

| 마을명                  | 주요 시설 명                       | 지정년도  |
|----------------------|-------------------------------|-------|
|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하전 마을)   | 진입로포장, 도수로조성, 종합안내센터, 화장실 등   | 2002년 |
|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만돌 마을)   | 종합안내센터, 광장조성, 식재공사, 세족장 등     | 2003년 |
|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모항 마을)   | 체험안내센터, 수변데크, 주차장, 안내판, 침목도 등 | 2004년 |
|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장자 마을)   | 종합안내소, 갯벌체험장, 관광체험장           | 2005년 |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선유도 마을) | 종합안내센터, 바다낚시 체험장, 갯벌체험장 등     | 2010년 |
|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장호마을)    | 안내센터, 주차장, 세족장 등              | 2011년 |
| 군산시 (신시도마을)          | 체험안내소, 갯벌체험장데크, 독살체험장, 상징게이트  | 2012년 |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보도자료. (2015). 2015년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3.

- 해양수산부는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은 전국 106개 중 6.6%(7개)로 절대적인 마을 수는 적지만 성공적 체험마을 운영을 인정받고 있음
- 신시도마을과 장호마을, 만돌 마을 등 3개 마을은 2회 이상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표 2-7〉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의 수상실적

| 구분         | 수상마을                           |
|------------|--------------------------------|
| 1회(2006년)  | 고창군 하전마을(최우수상)                 |
| 2회(2007년)  | 군산시 장자도 마을(우수상)                |
| 3회(2008년)  | 군산시 장자도 마을(대상)                 |
| 4회(2009년)  | 고창군 만돌 마을(최우수상)                |
| 9회(2014년)  | 군산시 신시도마을(장려상)                 |
| 10회(2015년) | 군산시 신시도마을(최우수상), 고창군 장호마을(장려상) |
| 11회(2016년) | 고창군 장호마을(은상), 부안군 모항마을(동상)     |
| 12회(2017년) | 고창군 하전마을(장려상)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재정리.

- 어촌체험마을 성공사례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발간하는 우수 어촌체험마

을 성공사례집에 소개되고 있음(한국어촌어향협회, 2009; 2010; 2013; 2014)

-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어촌체험마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의 관심과 어촌체험마을 연계 노력, 정부 지원의 적극 활용 등을 공통 성공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중요함. 대부분 어촌계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 구성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수 체험마을은 총 3회에 걸친 객관적인 심사에 의하여 선정됨(한국어촌어향협회, 2009; 2010; 2013; 2014)

- 1차 평가는 운영체계성, 서비스 및 시설 수준의 적합성, 사업성과(방문객수, 소득증대 등) 등을 서류심사 방식으로 평가함
- 2차 평가는 지자체 협조, 경관, 인적요소, 공간요소, 체험요소, 경제적 요소, 홍보 등의 항목을 현장심사 방식으로 평가함
- 3차 평가는 주민의 노력, 발전과정, 운영성과, 향후계획, 확산가능성 등을 사례 발표심사 방식으로 평가함

## 나. 전라북도 어항 현황

- 「어촌·어항법」에는 어항의 법적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함(어촌·어항법 제3조 제3항)
  -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의미함(어촌·어항법 제3조 제3항의 가)
  -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의미함(어촌·어항법 제3조 제3항의 나)
  -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의미함(어촌·어항법 제3조 제3항의 다)
  - “마을공동어항”은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를 의미함(어촌·어항법 제3조 제3항의 라)
- 해양수산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국가어항은 총 6개항, 지방어항은 총 11개 항으로 전라북도에 총 17개 어항이 있음
  - 전국 국가어항 109개항 중 전라북도 어항은 6개로 5.5%임
    - 전라북도 국가어항은 군산시 말도항, 어청도항, 연도항, 부안군 격포항, 위도항, 고창군 구시포항 등 6개 항이 있음
  - 지방어항의 경우 전국 283개항 중 전라북도 11개항으로 총 3.9%임
    - 전라북도 지방어항은 군산시 개야도항, 무녀도항, 방축도항, 비안도항, 선유도항, 부안군 성천항, 곰소항, 궁항, 식도항, 송포항, 고창군 동호항 등 11개 항이 있음
  -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군산시 9개항, 부안군 5개항 등 총 14개항이 있음. 전국 611개항 대비 2.3%임
  - 시·군 단위로 살펴보면 군산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어항이 조성되어 있음

〈표 2-8〉 전라북도 어항현황

| 지역      | 시군구 | 국가어항 |       |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전체소규모 어항 |
|---------|-----|------|-------|------|------|--------|----------|
|         |     | 연안   | 도서    | 계    |      |        |          |
| 전라북도    | 군산시 | 0    | 3     | 3    | 5    | 9      | 1        |
|         | 고창군 | 1    | 0     | 1    | 1    | 0      | 1        |
|         | 부안군 | 1    | 1     | 2    | 5    | 5      | 8        |
|         | 계   | 2    | 4     | 6    | 11   | 14*    | 10       |
| 전국합계    |     | 71   | 38    | 109  | 283  | 611    | 1,291    |
| 전라북도/전국 |     | 2.8% | 10.5% | 5.5% | 3.9% | 2.3%   | 0.8%     |

자료 : 해양수산부(2015. 12. 기준)

\* 전라북도 어촌정주어항은 2018년 1월 15일 기준으로 신시도항과 신치항이 지정됨에 따라 총 16개소가 되었음. 다만, 전국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표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표기함.

○ 어촌·어항법 제2조 제6항에 어항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 동 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함(어촌·어항법 제2조 제6호)

- 어항기본사업 :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어촌·어항법 제2조 제6호의 가)
-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어촌·어항법 제2조 제6호의 나)
-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어촌·어항법 제2조 제6호의 다)
-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 다목4(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에 따른 레저용 기반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어촌·어항법 제2조 제6호의 라)

○ 전국 어항 특화개발은 총 34개 어항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음. 전라북도의 경우 “다기능 어항”, “아름다운 어항”, “어촌 마리나역” 등 총 4개 사업에 선정됨(해양수산부, 2015A)

- 전국 13개의“다기능어항”중 부안군 격포항이 포함됨
- 2014년 전국 10개항의 “다기능어항”을 추가로 선정하였는데 부안군 위도 항이

포함됨

- 다기능어항은 “복합형 어항”, “낚시관광형 어항”, “피서리나형 어항” 등으로 구분됨. 다기능어항 개발의 목적은 “어항이 가지고 있는 어업기능 및 다양한 부가기능을 특화시키고 어항을 어촌지역경제 중심지로 육성하여 어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있음(해양수산부, 2015A)
  - 2015년 “아름다운 어항” 4개항을 선정함. 부안군 격포항이 포함됨
    - 아름다운 어항은 “기능적, 심미적, 문화적 아름다움을 갖춘 국가 어항을 지역 대표 명소로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미래 가치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15A)
  - 2015년 “어촌마리나역”어항 16개소 중 부안군 격포항이 포함됨
    - 어촌마리나역은 “어항을 어업겸용 소규모 마리나 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해상간이역 기능의 어항으로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도모함과 동시에 어항 기능의 다각화,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어촌지역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15A)
- 전라북도 어항의 실태조사를 하였음. 전라북도 어항 전체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본 과업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조사함

## 1) 지방어항

- 「어촌·어항법 제3조 제3항의 나」에서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지방어항은 총 11개소로 군산시 5개소(방축도항, 무녀2구항, 비안도항, 선유도항, 개야도항), 고창군 1개소(동호항), 부안군 5개소(곰소항, 식도항, 궁항항, 송포항, 성천항) 등이 있음

- 방축도항(군산시 옥도면 방축도리)은 2003년 8월 8일 지방어항으로 지정 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파제제, 물양장, 등산로,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선착장 80m(1996년), 서방파제 24m, 남방파제 35m(2011년), 파제제 93m, 물양장 180m(2013년), 등산로(데크) 263m(2012), 부잔교 1기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현재 어항개발공사 추진 중(2020년 완료예정)에 있으며, 2018년 1월 말도항로 차도선 취항으로 차도선접안시설 설치가 필요함
  
- 무녀2구항(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은 2003년 8월 8일 지방어항으로 지정 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도로, 소형어선인양기,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선착장 137m(2012년), 물양장 240m(2008년), 도로 227m(2011년), 방파제 72m(2013년), 소형어선인양기 1기(2012년), 부잔교 1기, 오토캠핑장 1식(2018)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지속적으로 항내 퇴적토가 쌓여 수심 확보 위한 준설이 필요하며, 어항이 복합공간으로 활용되는 추세에 맞추어 기능재배치, 보강작업 등 대응이 필요함
  
- 비안도항(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은 1972년 4월 12일 지방어항으로 지정 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도로, 부잔교, 해안 데크, 야영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북방파제 288m(1993년), 동방파제 80m(1993년), 물양장 307m(2011년), 선착장 88m(1995년), 부잔교 55m(2014년), 해안데크 675m(2016년), 도로 405m(2013년), 캠핑장 1식(2016년), 부잔교 1기, 해안산책로 13m(2016년)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지방어항 개발 사업이 오래 전에 추진되어 기능재

배치, 보강공사 등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항내 퇴적토가 쌓여 수심 확보 위한 준설이 필요함

○ 선유도항(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은 1972년 4월 12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도로, 부잔교, 관광기반시설, 등대, 소형어선인양기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선착장 215m(2002년), 물양장 280m(2004년), 동방파제 140m(2008년), 도로 47m(2009년), 관광기반시설(2011년), 등대 7m(2012년), 소형어선인양기(2012년), 부잔교 1기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경사 물양장 확장과 어항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어선 접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잔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함

○ 개야도항(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은 1972년 4월 12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도로, 부잔교, 차도선 선착장, 소형어선인양기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동방파제 380m(2011년), 남방파제 123m(2009년), 선착장 123m(2000년), 물양장 46m(2004년), 도로 3,495m(2009년), 차도선 선착장 70m(2012년), 소형어선인양기 1기(2014년), 부잔교 1기

○ 동호항(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은 1972년 4월 12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호안,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138m(1999년), 물양장 170m(1982년), 선착장 273m(1982~99년), 호안 282m(1998년), 부잔교 70m(2017년)

○ 곰소항(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은 1986년 3월 1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양장, 방파제, 물양장, 호안, 부잔교, 도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136m(2011년), 물양장 430m(2011년), 선양장 105m(2011년), 호안 90m(2011년), 부잔교 120m(2012년), 도교 12m(2012년)
  - 부안군 관계자 인터뷰 결과 간조 시 부잔교 연결도교의 경사가 급해지며, 물양장 방충재의 보수·보강이 필요함
- 식도항(부안군 위도면 식도리)은 2003년 8월 8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양장, 방파제, 물양장, 호안, 선착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143m(2011년), 물양장 140m(2014년), 선양장 64m(2011년), 선착장 163m(2011년), 호안 104m(2011년)
- 궁항항(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은 2003년 8월 8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방파제, 물양장, 호안, 부잔교, 도교, 선착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100m(2013년), 물양장 100m(2013년), 호안 607m(2013년), 부잔교1 26m(2014년), 도교1 20m(2014년), 부잔교2 20m(2014년), 도교2 15m(2014년)
- 송포항(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은 2007년 7월 13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방파제, 물양장, 부잔교, 도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85m(2011년), 물양장 319m(2011년), 부잔교 30m(2013년), 도교 15m(2013년)
- 성천항(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은 1989년 10월 5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20m(2014년), 물양장 304m(2014년), 선양장 25m(2014년)

## 2) 어촌정주어항

- 「어촌·어항법 제3조 제3항의 다」에서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어촌정주어항은 총 16개소로 군산시 11개소(장자도항, 무녀1구항, 관리도항, 명도항, 선유1구항, 선유2구항, 야미도항, 두리도항, 죽도항, 신시도항, 신치항), 부안군 5개소(모항항, 도청항, 왕포항, 벌금항, 대리항) 등이 있음
- 장자도항(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은 2012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방파제, 물양장, 도로, 해상낚시공원, 소형어선인양기,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물양장 28m, 도로 720m(2009년), 해상낚시공원 167m, 방파제 156m(2010년), 소형어선인양기 1기(2011년), 부잔교 1기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2018년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2018년 1월 말도항로 차도선 취항을 지원하기 위한 차도선접안시설 설치가 필요함
- 무녀1구항(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은 2012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물양장, 선착장, 도로, 소형어선인양기,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물양장 15m, 선착장 230m, 부잔교 16m 1기, 소형어선인양기 1기(2013년)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2018년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부잔교의 교체가 필요함
- 관리도항(군산시 옥도면 관리도리)은 2012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방파제, 호안, 선착장, 도로, 소형어선인양기, 부잔교, 야영장 등 시

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140m, 호안 50m, 도로 437m(2013년), 선착장 94m(2008년), 부잔교 1기(2011년), 소형어선인양기 1기(2013년), 야영장 1식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2018년 1월 말도항로 차도선 취향으로 차도선 접안 시설 설치와 항내 퇴적토가 지속적으로 쌓여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이 필요함. 항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잔교의 위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명도항(군산시 옥도면 명도리)은 2012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방파제, 호안, 물양장, 선착장, 도교, 부잔교, 소형어선인양기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161m(2012년), 호안 103m(2012년), 물양장 154m(2010년), 선착장 106m(2013년), 부잔교 및 도교 1기, 소형어선인양기 1기(2011년)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2018년 1월 말도항로 차도선 취향을 지원하기 위한 차도선 접안시설 설치가 필요함

○ 선유1구항(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은 2012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방파제, 물양장(공사 중), 도로, 해안데크,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136m(2016년), 물양장 84m 공사 중(2018년), 도로 365m(2009년), 해안데크 650m(2013년), 부잔교 1기(2011년)

○ 선유2구항(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은 2012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물양장, 도로,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물양장 40m, 도로 120m, 부잔교 16m 2기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현재 설치된 부잔교의 교체가 필요하며, 어선 접안 시설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잔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 야미도항(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은 2010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소형어선인양기,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물양장 179m(2008년), 선착장 120m(2009년), 방파제 114m, 소형어선인양기 1기(2013년), 부잔교 2기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해 방파제의 연장이 필요하며, 항내 도로의 보강 공사가 필요함
  
- 두리도항(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은 2012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도로, 호안, 부잔교(공사 중)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82m(2009년), 물양장 195m(2010년), 도로 413m(2010년), 선착장 20m(2012년), 호안 70m, 부잔교 1기 공사 중(2018년)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2017년에 도로 보강과 부잔교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음.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함
  
- 죽도항(군산시 옥도면 죽도리)은 2012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물양장, 선착장, 선양장, 방파제, 호안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103m, 선양장, 물양장, 선착장 15m, 호안 70m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재배치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함
  
- 신시도항(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은 2018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착장, 등산로, 호안, 방파제, 물양장, 도로, 소형어선인양기,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선착장 306m(2013년), 등산로 985m(2009년), 서측호안 43m, 친수호안 483m, 서방파제 40m, 동방파제 59m, 직립식 물양장 185m(2010

년), 도로 313m(2011년), 소형어선인양기 1기(2011년), 부잔교 어선용 2기(3.4×20×2)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신시도항은 2018년도에 어촌정주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어항 개발 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신치항(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은 2018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서방파제 278.7m, 북방파제 72m, 직립식 물양장 25m, 계단식 물양장 220m, 선착장 16m, 부잔교 어선용 1기(30×15), 부잔교 해경용 1기(10×2.5)
- 군산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신치항은 2018년도에 어촌정주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어업인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므로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함

○ 모항항(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은 2008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호안, 도교, 부잔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100m(2011년), 선착장 125m(2011년), 호안 156m(2011년), 부잔교 30m(2013년), 도교 15m(2013년)

○ 도청항(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은 2008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호안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55m(2011년), 선착장 24m(2011년), 호안 146m(2011년)

○ 왕포항(부안군 진서면 운호리)은 2008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부잔교, 도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55m(2011년), 선착장 188m(2011년), 부잔교 30m(2014년), 도교 20m(2014년)

○ 별금항(부안군 위도면 진리)은 2008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양장, 방파제, 부잔교, 호안, 도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90m(2011년), 선양장 320m(2011년), 호안 336m(2011년), 부잔교 30m(2015년), 도교 15m(2018년)

○ 대리항(부안군 위도면 대리)은 2008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착장, 방파제, 호안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현황 : 방파제 485m(2014년), 선착장 121m(2014년), 호안 507m(2014년)

## 다. 시사점

-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을 구성하는 마을과 어항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하였음
- 전라북도의 46개 어촌마을은 대부분 지자체,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어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대표적인 어업 외 소득원은 어촌체험을 통한 관광수입 창출임
    -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우수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데,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어촌체험마을에서는 부 수입원으로 생각했던 체험과 관광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남
    - 어업 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어촌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지고,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짐
- 어촌체험마을 성공사례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의 관심과 어촌체험마을 연계 노력, 정부 지원 활용 등이 대표적임(한국어촌어항협회, 2009; 2010; 2013; 2014)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중요하며, 계획 단계에서 부터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일자리, 소득 증대, 지속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함
    -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어촌계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활성화 사례는 어촌계 뿐 아니라 부녀회, 청년회 등 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의 협조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마을 특화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시·군 단위의 계획을 해당 어촌 마을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연구진의 현장 방문 시 마주친 주민들은 민원사항의 추진현황, 개선방안 등을 동행한 담당 공무원에게 자유롭게 질문·건의하였고, 해당 내용은 추후 확인한 결과 시·군 담당부서의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음
-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경기도, 충청남도 등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일부 체험마을의 경우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2회 이상 수상하기도 하였음
- 다만, 지리적으로 특화 자원이 유사하여 체험 프로그램의 차별화는 지속적인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갯벌을 끼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에서는 갯벌체험으로 소개 캐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촌체험마을에서 소개 캐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되면, 재방문 빈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차별화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는 방문객 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 재방문은 긍정적 피드백, 적극적 관광객 유치 등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 관광객 만족도 측정을 할 경우 첫 방문 관광객과 재방문 관광객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만족 사항, 불만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고객 유치 활동은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 유지를 포함하는 개념임. 자원 투입 대비 성과가 높은 것은 기존 고객 유지이며, 이는 기존 고객의 재방문과 긍정적 피드백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중앙대, 2012)
- 전라북도는 11개의 지방어항이 있음. 대부분 지방어항은 오래 전에 지정되어 어업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복합어항으로 어촌관광의 거점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기능재배치와 적절한 보수·보강이 필요함
- 어촌정주어항은 16개 항이 있음. 지방어항에 비해 비교적 지정이 최근(2008년, 2012년, 2018년)에 이루어졌음. 어업인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



하는 어항은 안전사고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진의 현장 조사 결과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에는 일반 관광객의 방문이 많았음. 일반 관광객은 어민에 비해 어항시설과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낚시, 트래킹 등 자유롭게 어항과 배후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시급성을 두고 안전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3. 어촌 공간 활용계획과 실천

#### 가. 어촌 공간 활용관련 정부계획 및 정책추진 현황

##### 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동향

- 최근 어촌 공간을 전통적인 수산업 기지 역할에서 어촌관광, 거주지역화, 일자리 창출 등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장시켜서 접근하고 있음
  - 정부의 어촌 공간 활용계획은 세부사업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변경에 따라 보완(또는 수정계획)하고 있음
- 문재인정부(2017. 5~2022. 4)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인구절벽 해소 등 주된 국정방향을 수립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따라서 어촌 공간 활용방안도 주된 국정방향과 일치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100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부 주관 과제는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강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3개 과제가 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어촌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과 관련성이 높으며, 해양안전 강화도 연계성이 있음
- 어장 회복, 어촌 활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물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 현재 우리나라 어촌은 인구 감소에 따른 기반 약화와 복지 미흡, 소득안정화와 정주여건 개선 필요, 어촌경영을 위한 인적자원 부족과 수산어촌 통합정책 미흡 등의 현안이 있음

-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산자원 보호, 수산자원 조성과 회복, 어획관리 강화, 인적자원 유입여건 조성 and 소득창출, 복지어촌 조성을 위한 어촌 삶의 질 향상, 어촌 공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함

〈그림 2-9〉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 관련 분야

| 국가비전         |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
|--------------|------------------------------------------------------------------------------------|----------------------------------------------|-------------------------------------------------------------------------------------------------------------------------------------------------------------------------------------------------|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해양수산부 주관                                     | 100대 국정과제                                                                                                                                                                                       |
|              |                                                                                    | 3                                            | 17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                                                                                                                                                                                                 |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전략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br>전략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br>전략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부)<br>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강화 및 국토교통사업 경쟁력 강화(국토부)<br>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산업발굴 육성(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구축 및 현장즉시대응강화(안전처)<br>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산업부, 원안위)<br>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문화부)                                                                                           |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전략5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br>전략2 :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br>전략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80. 해운조선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br>84. 깨끗한바다, 풍요로운 어장 | 78.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산업/국토/행자)<br>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조성(농식품부)<br>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통일부)<br>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강화(외교부)                                                        |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전략5 :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br>전략3 : 국제협력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환경부))<br>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br>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도시재생뉴딜(국토부)<br>82. 농어업인 소득안정(농식품부)<br>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외교부)<br>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 적 경제협력 강화(산업부)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 자료집, 17.

## 2) 해양수산부 업무분야 별 기본계획 현황

- 해양수산부의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세계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3대 중점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18)
  - 첫째,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함. 해양수산 관련 창업, 해양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해양수산부, 2018)
    -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 소자본 벤처창업 지원, 청년 귀어, 해양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함

-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 : 관광 콘텐츠 개발(해중경관 지구, 수중레저 클러스터, 해안누리길, 낚시 레저문화 조성 등)
- 둘째, 어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슬로건으로 어가 소득을 향상함. 수산업 생산, 수산식품 수출 지원, 어업외 소득창출과 어민 복지 확충 등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해양수산부, 2018)
  - 수산업의 생산혁신 : 잡는 어업은 생산량을 회복하고, 양식어업은 첨단화·규모화 추진
  - 수산식품의 수출 전략 산업화 : 세계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기반 강화와 제도 정비 등 추진
  - 어업외 소득창출과 복지 확충 : 어촌 관광 등 소득창출,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등 추진
- 셋째,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함. 4가지 사업 유형 중 어촌마을 재생형, 어촌관광 수요창출형이 어촌 활용과 연관성이 있음(해양수산부, 2018)
  - 어촌마을 재생 형은 쌈지공원 조성, 어촌마을 벽면 디자인 개선, 마을도로 정비 등을 추진함
  - 어촌관광 수요 창출 형은 레저선박 전용 계류시설 확충, 유서 깊은 항·포구 복원을 통한 관광명소화, 어구창고 설치를 통하여 어항 경관 개선 등 추진함
- 현재 어촌 공간 활용과 관련된 정부의 세부 발전계획은 어촌·어항, 수산업·어촌 등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계획의 경우 계획기간이 만료되어 제2차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 3.)」, 「해양환경종합계획(2015. 1.)」, 「2020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2014. 4.)」,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0. 12.)」,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15. 12.)」 등이 대표적임
- 각 계획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수립 목적에 따라 지역별 발전계획

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의 어촌 공간 관련 계획을 통하여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활용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 정책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체적인 지자체 차원의 발전방안 모색이 가능함

○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 전반의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경우 향후 공모사업, 시범사업 등 국고지원을 받는 데 유리함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0. 12.)」에서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양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산업 저변 확대가 중요함

- 해양산업은 해양생명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산업을 총칭함(나정호 외, 2017)
- 해양산업 저변을 확대시키려면 자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심이 어촌이 되어야 함

○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2015. 7.)」에서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조성”,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어촌·어항을 단순 작업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부가가치 창출 등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함
- 어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은 어촌 자원의 적정히 사용하고, 젊고 도전적인 인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촌 자원과 결합하는 데 달려 있음

○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2016~2020)」은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어촌 활력 제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세계 경쟁력 강화”, “미래수산업 실현” 등을 핵심목표로 설정함

- 첨단기술을 도입한 수산업을 적극 장려함
  - 수산식품산업의 저변을 확대하여 어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려고 함
  - 제철 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해산물 요리를 개발하면 관련 축제, 지역 음식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 3.)」은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관광을 다양화하고, 해양레저문화의 확산에 대응이 필요함
  -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어촌 관광, 해양 레저 분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양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함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 11.)」에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양환경 오염원 발생 원인에 맞춤형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어촌 공간도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맞추어 경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2017. 4.)」은 “지속 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및 관리”, “내수면 수산식품 가공과 수급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어업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과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정책기조는 어촌, 해양수산업에도 적용될 것이라 판단함
  -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수산식품 가공·유통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제도적 지원을 고민해야 함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2014. 4.)」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킬 필요가 있음
  - 여촌 공간에서도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미래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과학기술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 나.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 관련 정책추진 현황

### 1) 전라북도 해양수산 추진과제

- 전라북도는 2017년 해양수산 5대 중점추진과제로 “어업 생산성 향상”, “친환경 양식 등 부가가치 창출”, “어촌관광과 해양레저 활성화”,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성 강화”,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호” 등을 선정하였음
  - 어촌은 5대 중점추진과제의 추진공간이기 때문에, 영역별로 목표에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전라북도의 어촌 관련 주요 성과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유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 연안바다목장 신규 사업지 선정 등이 있음
  - 2017년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수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추진하여 향후 5년 간 해양수산 분야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음
    - 핵심 추진 과제의 대부분은 공간적 배경을 어촌으로 하므로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을 유치하여 수산물 검역·검사, 안전성 조사, 원산지 지도·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여 전라북도 수산물의 품질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권역단위 거점개발에 고창군 만돌권역(100억 원, 2018년~2021년)이 선정되었고, 마을 단위 특화개발로 부안 대리·전막마을(30억 원, 2018년~2020년)이 선정되었음
  -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역이 연안바다목장 신규사업지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0억 원의 지원을 받아 392ha 범위에 조성함
- 2018년에도 전라북도의 해양수산 분야 어촌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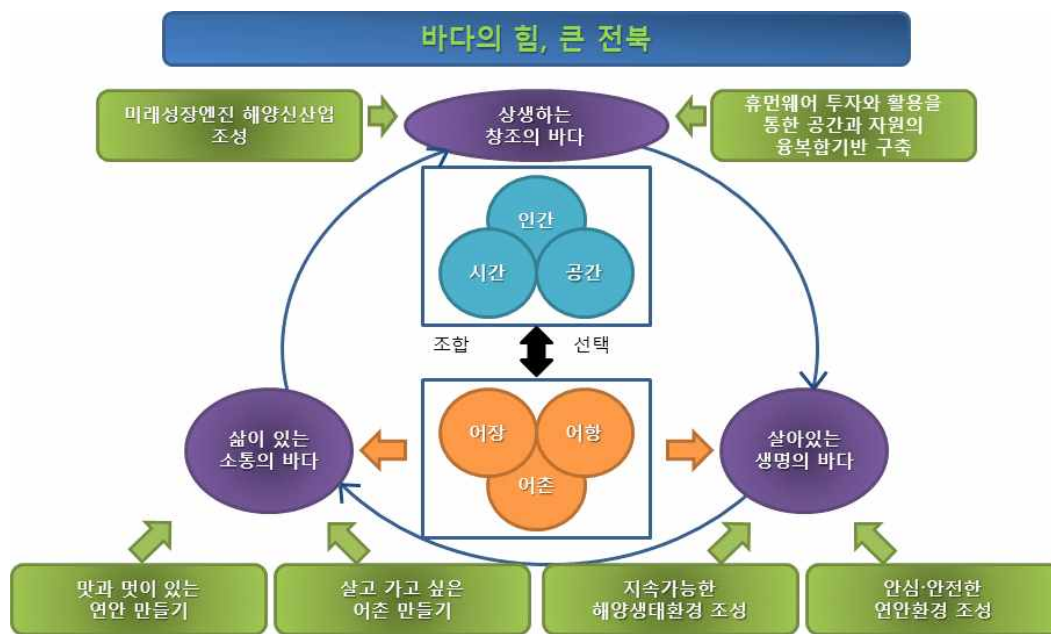


진될 것으로 예상됨

- 어촌 활력을 위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어항 기능 다양화, 어촌 관광시설 확충, 해양레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임
- 특히,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된 4건에 대하여 실행계획 용역을 추진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서는 3대 목표, 6개 추진전략, 63개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이 중 핵심과제로 31개가 선정되었음. 2018년 1월 도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우선 과제 4개가 선정됨
-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권역단위 거점개발과 마을단위 특화개발에 각각 1개 권역, 4개 마을의 선정을 추진하고 있음

## 2)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8~2035)」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수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며, 2017년 8월에 완료되었음
- 어장, 어항, 어촌 등 어촌 공간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하드웨어적 기반 구축과 소프트웨어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세부계획이 제안되었고, 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1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함
-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31개의 핵심과제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라북도 전문가 자문회의(2018년 1월)가 개최되어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함



〈그림 2-10〉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8~2035) 비전체계

### 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2017. 9.)」에서 “海洋樂道 全羅北道”를 비전으로 제안하고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 방향설정과 토대구축(2018~2022)”을 핵심목표로 설정함
- 중점육성산업으로 수산식품산업, 해양레저산업, 해운항만물류산업, 미래해양산업 등 4개 산업을 선정하였음
  - 4개 중점산업에 따른 3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 어촌 공간을 활용하여 어촌관광, 수산식품산업, 해양자원 R&D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다수 과제가 제안됨
  - 해운항만물류산업을 제외한 3개 중점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공간이 어촌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음



〈그림 2-11〉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 비전체계

## 다. 타 지자체의 어촌 활성화 관련 계획 현황

- 「제2차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2016. 6.)」에서 부산광역시는 6대 중점 해양산업을 선정하였는데 수산, 해양관광,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의 관리 및 보전 등 4개 영역에서 어촌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함
  - 부산광역시의 경우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강점을 활용함
- 「경기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2012. 12.)」에서 3가지 핵심목표를 제안함. “고부가가치 신해양수산 육성”, “미래핵심 신 성장 동력 해양관광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환경구축” 등 핵심목표 추진의 공간이 어촌임
  - 수산업, 해양관광에 지역 발전 계획을 집중함. 경기도는 서해안 입지 특성 상 경쟁과 협력 요소가 있음
  - 발전 지향 정책보다 어촌 특유의 문화, 특성을 고려한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2015. 10.)」을 통하여 충청남도는 “해양건도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
  -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아름다운 어항”, “미래 성장 동력 해양 신산업 창출” 등 발전 방향을 설정함
  - 충청남도 특유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함. 전라북도 인접 지자체이기 때문에 어촌 공간 활용방안 모색 시 차별화 방안이 요구됨

## 4.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과제

- 어촌 공간의 개념은 연안의 어장, 어항, 어촌마을, 마을 배후지역까지 확장하여 검토해야 함
  - 어촌의 핵심 정책은 대개 어항과 어촌마을 활성화 중심으로 추진되어 옴. 최근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과 첨단 기술 융합을 독려하기 위하여 귀어 귀촌, 청년 창업 등을 독려하고 있음
- 어촌 여건 변화에 따라 어촌 공간의 활용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최근 워라벨, 스라벨, 힐링 등 휴식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 확산으로 어촌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라 어촌에서는 어가 인구 감소,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위기이자 치유, 헬스케어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어항은 어촌관광의 중심지로 낚시, 해수욕장, 트래킹, 생태관광, 수상레저 등을 지원함
- 전라북도의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을 조사한 결과 수산업 기지, 어촌 공간의 핵심으로 정부 정책과 일관성 있게 유지·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어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어업 생산 공간으로 활용되어 최근 복합어항으로 다양한 기능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미진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기능재배치와 보강을 검토해야 함
    - 최근 안전 이슈가 전 영역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수·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11개의 지방어항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능재배치 수요를 검토하여 시급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2008년, 2012년, 2018년 등 비교적 최근에 지정되어 지방어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업 생산, 어촌 관광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이 잘 되

고 있음

- 일부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어촌마을은 마을 특화 요소를 활용하여 수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특히,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에서 다수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 갯벌자원을 활용한 갯벌체험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음
- 다만, 전라북도 뿐 아니라 대부분 어촌체험마을에서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체험마을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 2018년 해양수산부는 어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수립함. 어가 소득은 어업 소득과 어업 외 소득으로 구분됨

- 어업 소득은 수산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어업 외 소득은 어촌 관광, 해양 레저, 음식점,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얻는 소득이 주를 이룸
- 어업 외 소득에서 주목할 영역은 어촌체험마을인데, 체험 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어업 소득을 상회하는 사례도 있음
- 지속 가능한 해양 생명 자원 보호를 위하여 휴어제, 어구관리 등 어획 강도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업 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어촌 공간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주된 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으로 도출할 수 있음

-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 자원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면 어업 생산은 ‘적정히’ 해야 하고, 적정 한도 이상은 ‘어업 외 분야’에서 새롭

게 발굴해야 함

- 어업 외 분야에서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대개 어촌체험마을 운영, 해산물 음식점, 어촌 관광, 해양 레저, 숙박시설 운영 등 체험과 관광 분야가 대표적임
- 체험과 관광 분야에서 많은 사업 아이템이 제안되었고 그 중 일부가 현재 추진 중임. 다양한 체험·관광 수요를 고려하여 ‘어촌’, ‘체험 또는 휴식’, ‘즐거움’을 연결하는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해양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검토하면 해양 산업의 원료가 되는 해양 생명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과 젊고 창의적인 인력이 해양 산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 해양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지원하는 핵심 기지는 어촌 공간이 되는 것이 마땅함
- 해양 생명 자원의 공급처는 해양과 인접한 어촌이 될 수밖에 없음. 젊고 창의적인 인력의 해양 산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전라북도과 관계 시·군의 업무계획을 검토한 결과 어업과 어업 외 분야에서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전통적인 수산업, 어촌체험, 해양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

○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자원, 유허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해양수산을 지원하고 정부의 핵심공약인 어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핵심은 어촌의 유허 공간에 젊고 창의적인 인력을 유인·지원하고, 기존 어촌 공간 거주자와 융합,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





# 3

장

## 어촌 및 공간 활성화 사례

Jeonbuk Institute

- 
1. 어촌 활성화 사례와 주요내용
  2. 공간 활성화 사례와 주요내용
  3. 시사점



## 제3장 어촌 및 공간 활성화 사례

### 1. 어촌 활성화 사례와 주요내용

#### 가. 경관 개선 사례

- 전라남도 고흥군 연흥도는 작은 섬이었으나 예술인이 이주하면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음
  - 어촌 특유의 폐어구, 조개껍질 등을 재료로 하여 조형물을 만들고, 벽화를 그려 경관을 개선하였음
  - 어항과 방파제 인근에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는 가고 싶은 섬, 걷고 싶은 섬으로 유명함. 청산도는 자연 경관과 전통을 보전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청산도는 경관자원과 유산을 보전하여 그림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미지를 부각함
  -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로 지정된 구들장논, 전통 돌담길 등을 관리·보전하고 경관작물로 유채꽃을 심어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 영화 서편제, 드라마 봄의 왈츠 등 촬영지는 방문하는 관광객의 사진 촬영 포인트가 되고 있음

#### 나. 체험과 문화

- 강원도 삼척시 장호항 일대는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 여름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15B)

- 장호어촌체험마을은 다른 어촌체험마을과 달리 해양레저에 특화되어 있음.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 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투명카누 생태체험, 스노클링, 체험다이빙 등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장호항 주변에서 게 잡이, 고동 잡이, 통발어업, 후릿그물 당기기 등 어업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음
  - 독특한 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어업 외 관광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음
- 부산 기장 해변항 일대에서는 매년 4월 기장 멸치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바다축제의 일반적인 코스는 물고기 잡기, 노래자랑, 공연, 시식회 등이 포함되어 있음(해양수산부, 2015B)
- 기장 멸치 축제는 일반 바다 축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패밀리가 떴다, 멸치 기네스 등 독특한 프로그램도 삽입하였음
    - 패밀리가 떴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임. 가족단위로 축제장 일대를 돌며 미션을 수행하면 포상으로 해변항 일대 해상선박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멸치 기네스는 수족관에 담긴 멸치 잡기, 멸치 까기, 멸치 넣기, 멸치 이어달리기 등 축제 주제인 멸치를 이용한 게임으로 기록이 저장됨
- 기장 멸치 축제는 어촌 축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독특한 경관이 있을 경우 경관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어촌은 바닷가, 어항 정도의 유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임
- 팔라우는 천혜의 바다 자원을 가진 남태평양 나라로 다양한 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밤낚시 프로그램은 낚시 초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녁에 낚시를 하고 잡은 물고기로 선상에서 생선회를 즐기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임

- 현지 전문가가 바다낚시 기초를 알려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체험할 수 있음
  - 밤낚시는 기본적으로 체류형 관광을 전제하기 때문에 숙박, 음식점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있음. 또한, 안전요원과 초보낚시꾼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음
- 독일의 작은 섬 랑어욱은 갯벌자원을 활용하여 어촌 공간을 활성화함. 갯벌자원을 복원하고 그에 맞추어 갯벌해설사 양성,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김종화, 정옥식, 2013)
- 갯벌 복원으로 갯벌의 어류 서식지, 오염정화,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절감, 미적 기능 강화 등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갯벌관광이라는 어업 외 소득 창출이 가능해짐
  - 독일 랑어욱의 인구는 약 1,800명이지만 성수기 기준 하루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부유한 어촌마을이 됨\*
- \* 본 내용은 KBS 시사기획 창 제222회, “갯벌의 귀환 생명이 돌아오다.”, 2017. 10. 24. 방영내용을 참조하였음
- 전라북도의 경우 곰소만 일대 갯벌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다양한 갯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독일 랑어욱의 성공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갯벌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은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음
  - 많은 관광·체험객 유치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갯벌보전과 어촌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말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갯벌체험과 어촌 활성화 연계 공간 마련이 강점으로 작용하리라고 판단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통적 어업활동과 그 결과 나타난 어촌 경관·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이라고 함

○ 제주 해녀어업(제1호)은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방식을 의미함

- 불턱, 해신당 등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됨

○ 보성 뽕배어업(제2호)은 얕으면 깊게 빠지는 갯벌 진흙 특성으로 뽕배는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음

○ 남해 죽방렴(제3호)은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운영된 함정어구 어로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 어업 시스템임

○ 신안 갯벌 천일염업(제4호)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어업활동시스템임

○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되면 해당 어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자체가 어촌 문화로 보전 가치가 높아지며, 전통 어업 체험을 원하는 체험객의 수요가 증가함

\* 이상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내용은 어촌 6차 산업(국가중요어업유산)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2017. 12. 15. 접속)

○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에서는 현지 특산물을 활용하여 해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버거, 튀김,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등 해산물을 주재료 혹은 부재료로 사용하여 해당 지역의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음

- 전라남도 장흥군에 가면 장흥삼합이라는 특화 메뉴가 있음. 장흥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삼합으로 먹는 것인데, 장흥군의 특산물을 결합하여 대표 메뉴로 발전시킴
  - 한 식당에서 개발한 장흥삼합은 입소문을 타면서 장흥삼합 자체가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음
  -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인식되면, 지역에 방문해서 대표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지역 대표 음식을 먹기 위해 방문하기도 함
  
- 미국 플로리다 주 아팔라치콜라(Apalachicola)에서 매년 11월 첫 주말 ‘플로리다 해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해산물 축제(seafood festival)는 어민들이 해산물 음식을 나눠먹는 파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축제로 대형화됨
  - 굴 먹기 대회, 굴 까기 대회, 퍼레이드, 각종 콘서트, 예술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2일 동안만 진행되지만,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 축제임

## 다. 예술

- 전라남도 여수시는 2012년 세계 해양엑스포를 개최한 대표적인 해양도시임. 그러나 여수시는 해양엑스포의 도시라기보다 밤바다가 아름다운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
  - 대중가요 여수밤바다(버스커버스커)는 다양한 계층에 ‘밤바다는 여수’라는 공식을 만들었음
  - 해양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정돈한 밤바다 산책로와 야간 조명, 거리공연이 결합하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여수시를 방문함
  - 대중가요 한 곡이 여수시의 야간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로 평가

할 수 있음. 여수시는 해마다 봄, 여름, 가을 주말 저녁에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거리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 본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내용을 참조하였음(2018. 5. 15. 접속)

○ 밤바다가 아름다운 여수라는 타이틀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바닷가 인근 친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소호동동다리가 있는데, 소호요트경기장인근 바닷가에 데크를 설치하여 산책하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하였음. 저녁에는 조명시설을 활용하여 밤바다 야경을 즐기고 있음

- 밤바다 경관이 조성되니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어 외부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남. 더불어 커피숍, 식당 등 편의시설 중심으로 인근 상권이 살아나는 파급효과가 생김

\*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방영된 SBS 드라마 『사랑의 온도』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짐

○ 여수밤바다라는 테마를 밤바다 인근 거리공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소호동동다리와 해변공원 연결로를 산책하다보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곳으로 알려진 선소유적지까지 도보로 연결할 수 있어서, 역사자원과 여수밤바다의 테마, 문화 등을 연계할 수 있음

- 역사문화자원, 예술, 경관 등을 분리하여 활용하기보다 연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요소로 삼을 수 있음

## 라. 어촌 공동창업 사례

○ 완도전북주식회사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시군유통회사로 전라남도 완도군의 1,200여 어민과 해양수산부, 완도군이 함께 설립한 전북전문회사임



- 전복 생산과 판매에 집중하던 전통적인 어업에서 6차 산업화를 전담하는 공동 회사를 설립한 사례임
  - 생산어가 품질교육, 전복 마케팅, 전복과 가공식품의 유통과 판매, 전복식품의 기능성 물질 개발과 연구, 전복과 가공식품의 수출, 전복 가공식품 제조 등 전 복 관련 업무를 총괄함
- 국내 최대 전복 가공공장 운영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둔 농어촌 공동 경영체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됨

\* 본 내용은 완도전복주식회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2018. 5. 15. 접속)

## 2. 공간 활성화 사례와 주요내용

### 가. 경관 활용 사례

- 드라마, 영화 등에서 배경으로 등장한 장소는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주문진 해변은 특별한 조형물이 없는 곳임. 자연 본연의 경관이 유지되어 한적한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 현재, 주문진 해변은 드라마 주인공이 착용한 소품을 유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까지 하는 등장함
    - 드라마, 영화의 촬영지로 알려지면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객은 인근 관광지까지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많음
  -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유지되면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지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보존되어 영화의 배경으로 활용된 지역은 영화 흥행이라는 호재와 더불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계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반지의 제왕』 영화 촬영지인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 영화 시리즈가 흥행하면서 영화 속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됨
  - 영화 『비치』와 007 시리즈 『황금총을 든 사나이』의 촬영지인 태국의 피피섬은 영화배우 이름을 딴 섬으로 알려지면서 푸켓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코스로 인식됨
  - 이 밖에도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 산업 활성화가 된 경우는 다수 찾아볼 수 있음

### 나. 체험과 문화

- 태국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재배한 농산물을 강줄기를 이용하여 소규모 내수로 물류(inland water transport)가 활발하였음

- 물류 서비스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관습적으로 이동 중 또는 하역 작업 시 매매가 이루어졌고, 자연스럽게 수상 시장 문화가 형성되었음
- 전통적인 수상 시장의 문화를 보전하면서 방콕의 수상시장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함
- 수상 시장 문화는 오늘의 물류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관광 관점에서 옛날의 이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현지 음식, 공예품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체험 거리로 여전히 활발하게 유지됨

\* 본 내용은 태국관광청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2018. 5. 15. 접속)

○ 대만 특유의 외식문화로 형성된 야시장이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방문지가 됨. 야시장은 전통시장이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며 먹거리 뿐 아니라 즐길 거리, 생활 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음

- 야시장은 대만 사람의 식습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체험 코스가 되었고, 오늘날 대만 관광에서 빼면 안 될 곳으로 야시장을 꼽음

○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경관, 문화, 특화 상품과 청년 창업을 연계한 기획 야시장으로 2015년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푸드 트럭과 판매자 등 총 120개 팀이 참가하여 시범운영한 후 현재 반포, DDP, 청계천, 문화비축기지 등지에서 상설운영하고 있음

- 2016년 방문객 수가 약 330만 명이며,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정책 1위에 선정되었음. 2017년에는 방문객 수가 약 500만 명이며, SNS에서 사랑받은 서울 사계절 축제 1위에 선정되었음
-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지역 활성화와 청년 기회제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내용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2018. 5. 15. 접속)

○ 전주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운영함. 전주 한옥

마을 관광객이 많은 주말 저녁,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한옥마을 야시장에서 체험할 수 있음

- 방송에서 소개되고, 블로그 등 소문이 퍼지면서 전주 관광 필수 코스가 되었으며, 인접한 청년 물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야시장 개설 이래 일평균 8천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본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2018. 5. 15. 접속)

## 다. 예술

○ 이탈리아 베로나는 셰익스피어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도시임. 소설의 배경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작품이기에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관광 상품을 만들었음(박준모, 2014)

-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 속 줄리엣의 집, 로미오의 집, 줄리엣의 무덤 등지로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관련 소품을 구입하는 등 전 세계의 관광객이 베로나를 방문하고 있음
- 문학 작품 하나로 유명 관광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 파주시에 헤이리 예술마을이 있음. 15만 평부지에 약 380명의 예술인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예술인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경관이 아름답고, 광장과 길이 예술작품으로 조성되어 있음
- 다양한 영역의 예술인이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레 퓨전 예술도 탄생하게 됨. 헤이리는 예술의 공간,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됨
- 건축 조형물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예술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등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는 종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본 내용은 헤이리 예술마을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2018. 5. 15. 접속)

## 라. 유헤 공간 활용 및 공간 공유 사례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역사에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음. 철도역 내의 유헤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임
  - 철도역을 이용하는 고객 중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다양한 지역의 관계자가 회의를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음
  - 기차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본원적 공간 용도에 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본원적 공간 용도의 기능을 달성하면서, 부가적 효용이 발생됨

- 에어비앤비(Air B&B)는 세계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유헤 공간이라기보다 유헤 시간에 공간을 대여하는 개념임
  -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숙박 공유는 방, 집, 별장 등 단위별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단기 임대를 하는 방식임
  - 유헤 공간은 아니지만,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임. 191개 국가, 65,000개 도시, 4백만 건 이상의 숙박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본 내용은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2018. 5. 15. 접속)

-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레알뉴타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채택되어 추진됨
  - 남부시장 2층 새마을 시장 공간에 청년의 감성과 도전 정신으로 시장을 새롭게 해석한 공간으로 현재 16개의 점포에서 공예품, 생활 용품,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음
  - 청년몰 일대의 벽화, 안내 표시,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는 표어 등 청년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음. 한옥마을, 야시장과 더불어 전주시 관광의 코스로 자리 잡음

\* 본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2018. 5. 15. 접속)

- Co-Working Space는 해외 유명 휴양지에서 단기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들에게 인기 있는 업무 공간으로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나 업무 환경을 제공함
- 사무실을 임대하기 힘든 초기 창업자나 단기 프로젝트 작업, 사무실이 지정 장소일 필요가 없는 프리랜서 등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부각하고 있음
- 공동 작업 공간이 카페처럼 제공되며, 단기간 사무실 임대, 회의실 이용 등 기존 사무실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됨

### 3. 시사점

#### 가. 공간 개방 효과

-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은 예외로 하더라도 생활공간은 개방하는 것이 폐쇄함으로써 유지되는 이익보다 큼
  - 장소가 개방되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방문객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하게 됨.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개방 → 방문객 증가 →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됨
- 어촌의 경우 어장과 어항의 배타적 이용권이 보장되어 어촌 공간이 일반인에게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어장과 어항의 경우 법률적 근거에 의해 어촌계, 어민 중심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다른 어촌 공간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음
  - 또한, 어업 작업은 어민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으므로 관광객을 배려하여 어구를 정리하고 쾌적한 어항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음
- 공간 개방과 공간 가치 재조명은 활용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삶의 공간으로 혼자 사용하던 방, 집, 별장 등을 유희 시간 중심으로 공유하여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 에어비앤비,
  - 기차를 기다리는 공간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사람들과 회의하는 공간으로 공간의 가치를 향상시킨 사례,
  - 활력을 잃은 전통시장에 젊은 청년의 도전정신을 입힌 야시장 등 기존 공간 가치를 재해석하여 긍정적 효과를 지역 전반적으로 확산시킨 사례가 많음

## 나. 공간 활용의 차별화

-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희소성이 떨어짐. 독특한 자연 환경,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집단의 도움으로 공간 활용을 차별화할 수 있음
  - 수상시장(태국), 밤낚시(팔라우), 해양레저(삼척시), 축제(부산시) 등 자연적 특성, 문화 전통 계승 등 이유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오늘날 관광 명소가 되었음
- 체험의 경우 가족단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함. 주 5일제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주말에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으므로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족 단위 방문객 전체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공간 활용의 차별화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참여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결합함
  -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차별화 가능한 영역을 결합하는 방법이 효과적임
  -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개발한 메뉴가 지역 대표 음식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공예 활동을 하던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 지역 대표 상징물이 되기도 함

## 다. 개발보다 보전

- 최근 인기 있는 장소의 특징은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서기보다 자연 그대로 환경을 보전하거나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경관을 개선한 사례가 많음
-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가 되면 관광객의 방문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대개 드라마, 영화의 촬영지는 다양한 개발 시설이 있는 곳도 있지만, 조용한 바다, 한적한 농지 등이 인기가 있음

- 갯벌을 복원하여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독일의 랑어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청산도,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보유한 제주도, 보성군, 남해군,新安군 등 자연과 전통을 보전하여 가치를 증명하고 있음

## 라. 예술과 지역 활성화

- 예술은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결합하고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기도 함
- 예술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활성화를 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
  - 예술가가 입주하여 예술 공간이 된 파주시의 헤이리, 예술가의 예술작품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연홍도 등 예술가는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위해 조용하고 쾌적한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아름답고 소박한 어촌이 예술가의 작업공간이 되고, 예술가의 예술작품이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에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고려할 수 있음



# 4

장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 어촌 공간 여건 분석
  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비전과 목표
  3.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 제4장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 1. 전라북도 어촌 공간 여건 분석

#### 가. 전라북도 어촌 공간 여건

##### 1) 강점

- 전라북도의 어촌 공간 활용의 경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SWOT을 실시하였음.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상 강점은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운영 노하우 보유, 세계적인 갯벌자원과 도서, 연안 등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한 것 등이 있음
- 전라북도는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등 7개의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음.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갯벌체험프로그램의 우수성이 검증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어촌 공간 활용은 기본적으로 수산업 생산, 보관, 유통의 거점으로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향 공간, 연계 작업 등을 토대로 어업 외 활동으로 어촌 활성화를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어촌 공간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어촌 마을 주민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인데, 어촌체험마을의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것은 어촌 공간을 활용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전라북도 어촌마을 인근의 갯벌 자원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세계 5대 갯벌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이 보전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약 2.5% 면적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음
  - 고창군, 부안군 일대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이자,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한 우수한 생태 자원임

- 고창군의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람사르고창갯벌센터와 부안군의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등 기반을 활용하여 갯벌생태 체험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고창군 하전어촌체험마을, 만돌어촌체험마을은 갯벌체험을 특화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함
- 섬 지역은 육상 어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섬 지역 특유의 문화와 더불어 생태 자원이 잘 보전되고 있음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어촌마을의 접근성이 높아짐. 관광객들은 유람선을 타고 인근 섬 지역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
  - 고창군, 부안군 일대의 갯벌생태지구 생태길, 자전거길, 마실 길 등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함

## 2) 약점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상 약점은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산업 활성화 저해, 어항시설 기능재배치·보강 필요, 인적자원 부족, 지역 특성화에 소극적 등이 있음
- 새만금 개발에 따른 수산업 발전이 제한적임. 새만금 개발은 향후 전라북도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수산업의 영역에서는 해양자원의 소멸, 조업범위의 축소, 어업 종사자의 이탈 등의 악순환이 있음
- 실제로 전라북도의 어촌은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이 대표적인데 김제시는 어항이 없는 상태임
-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항의 주된 목적이 어업기지 역할이므로 어업 생산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어촌관광,

해양레저 등 다양한 공간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기능재배치, 시설보강을 할 필요가 있음

- 어항 공간은 수산업 생산기지 역할이 최우선이지만, 최근 어항이 어촌 경관, 관광의 중심지로 부각함에 따라 경관 관리의 필요성이 주목받는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주체가 되는 인적자원이 중요함. 일반적으로 어촌 공간은 어업 활동의 중심지이므로 어촌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어업 외 활동을 위한 인적자원이 부족함

-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수산 관련 대학(군산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과의 부분적인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어업 이외의 식품, 요리, 관광,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대학과의 교류, 협력이 필요함

○ 전라북도 어촌은 지역 특화에 소극적임. 전라북도 어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인근 서해안 지역의 어촌에서 제공하고 있음

- 서울, 경기도 기준 당일치기 어촌관광은 경기도나 충청남도가 유리하며, 숙박을 포함한 어촌관광은 전라남도가 선호될 수 있음
- 전라북도 어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파격적인 어촌 공간 연계 체험 요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특화 요소를 개발해도 자연 여건이 유사한 인근 어촌에서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임

### 3) 기회

○ 어촌 공간 활용 상 기회요소는 여가문화의 확산, 기술 경쟁의 강화, 대한민국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 증대 등이 있으며,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고군산군

도 연결도로의 개통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워라벨, 스라벨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치유(healing)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
  - 주 5일제 근무와 일·가정 양립 문화에 따라 휴일을 활용한 여가 문화가 확산되고 특히, 가족단위의 여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가족단위의 여가문화는 체험, 야영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한 어촌의 기회 요소가 될 것임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에 따라 전통적인 수산업 경쟁력이 약세인 전라북도 어촌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어촌 공간은 관점에 따라 경관 개선, 다채로운 프로그램, 창업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다양한 활용 사례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보 전달의 거리 장벽을 무너뜨림
  - 기술경쟁 시대는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요소이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뒤쳐질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세계식량기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전 세계인의 수산물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산물 소비가 보편화되고,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짐에 따라 향후 어촌 공간에서 생산·가공·유통되는 수산물 소비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수산물 유통과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품질이 보장되면 수산물 소비량 증대에 맞추어 전라북도 지역 특산물의 판매량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최근 귀어·귀촌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귀촌한 어촌의 특산물 가공·유통에 차별적인 요소를 도입한 경우가 많음



- 어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 식품개발 등에도 유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전국 어촌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기회요소임. 전라북도 어촌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하면서 방문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어촌 공간 활성화의 일차적 요건인 방문객 유입이 달성되었음
  - 현재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대부분 경관 감상, 트래킹, 유람선체험, 낚시 등을 즐기고 있음. 향후 관광객 증가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현 시점에서는 분명 기회요소이나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면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음. 증가한 관광객 수요 맞춤형 체험거리, 먹거리,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으면 접근성이 좋았던 만큼 이탈도 쉽게 할 수 있음

#### 4) 위협

- 어촌 공간 활용 상 위협요소는 어촌 고령화, 수산물 수입량 증가,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이 있음
- 어촌 고령화는 비단 전라북도 어촌만의 문제가 아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어촌인구는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는 어가 인구감소와 연계됨
  - 인구는 현재 인구에서 출생 인구를 더하고, 사망 인구를 빼는 과정에서 측정되는데, 출생률은 낮고, 평균 수명은 길어짐에 따라 어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어업 분야의 고령화와 어가 인구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어촌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 소비량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산물은 수

입에 의존하고 있음

- 내수 생산 부족을 수입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수입 수산물의 증대는 우리나라 어가에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림 4-1〉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의 경쟁여건분석



○ 수산자원은 현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고 수산자원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수산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 허용 어획량 제도, 금어기 설정,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 불법어업 방지시설 설치, 수산종자자원관리 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조치는 수산업 생산량의 한계를 설정하여 생산량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함

○ 전국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음.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자원을 활용하여 어업 외 활동을 통해 관광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임

-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사례가 누적되면서 많은 어촌마을에서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어촌체험마을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음
- 인기 있는 갯벌체험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어촌체험마을에서 주력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나.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전략

### 가) SO전략

-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결합하여 SO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여가문화 확산으로 어촌이 치유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서, 연안 생태관광 자원과 세계적인 갯벌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여건과 체험마을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인 갯벌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여건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경쟁 시대를 고려하여 갯벌 자원 활용사업을 구상할 수 있음. 갯벌 기능성소재를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음

〈그림 4-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전략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도서, 연안 생태자원이 우수하므로 방문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체험 관광에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나) WO전략

-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약점과 기회 요인을 결합하여 WO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어촌이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됨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어촌을 방문하고 있으며, 어항을 중심으로 기념사진촬영, 트래킹, 해양레저 등에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어항 중심으로 경관개선을 하여 관광객의 만족과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어촌 공간 활용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약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경쟁 심화의 기회요인을 고려하여 어촌에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젊고 도전적인 청년 창업 희망자를 어촌으로 유인하여 미래해양신산업, 해양 관련 산업 육성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어촌의 지역 특화에 소극적이라는 약점은 여가문화 확산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극복해야 함
  - 어촌 지역 특화 추진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어촌특화 컨설팅을 지원하여 다른 시도와 차별성을 갖추고, 어촌 관광, 6차 산업화 중심으로 약점을 극복해나갈 필요가 있음

## 다) ST전략

-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강점과 위협 요인을 결합하여 ST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어촌 고령화와 어가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어촌 유희 공간을 발생시킴. 따라서 어촌 유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함
  -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어업 강도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어업 외 분야에서 유희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수요에 대응하거나, 갯벌생태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희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어촌체험마을의 성공노하우를 보유한 강점과 어촌 과소화 대응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참여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주민, 행정, 전문가 등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 세계적인 갯벌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의 유사성의 위협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갯벌생태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갯벌을 보유하지 않은 어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기존 갯벌을 보유한 어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도모함
- 갯벌생태자원은 보전과 해양자원의 지속성을 내재하고 있음. 어촌 고령화는 어업, 어촌 문화 등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온 어르신이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 보전, 지속성과 전라북도 어촌 역사, 문화, 특수성을 인지하는 어르신 경험을 결합하여 전라북도의 어촌자원을 발굴할 수 있음
  - 전라북도 특유의 어촌자원을 발굴하면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어촌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함

## 라) WT전략

-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약점과 위협 요인을 결합하여 WT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어촌 공간을 활용한 인적자원 부족의 약점과 어촌 고령화, 어가인구감소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촌 공간에 청년 유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적자원 부족은 인적자원의 유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귀어·귀촌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귀어·귀촌인은 어업 관련 분야 종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산자원 조성 관점에서 어업 강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해결하지 못함
  - 따라서 어업 외 분야에서 창업, 사업화할 수 있는 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 청년에서 전국 청년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 공간 활용의 인적자원 증가와 어촌 과소화에 대응할 수 있음
-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관점에서 어업의 강도가 적정하게 조정되고 있음. 전라북도의 경우 새만금 개발로 어업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어업 외 분야에서 사업 다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촌이 어업 중심으로 공간 설계가 되어 있다면, 유허 공간과 이용 제한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어업 외 활동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어촌 공간을 중심으로 어장, 어항, 어촌마을, 배후단지 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어촌은 활용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보전의 공간임.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니터링의 주체는 지역주민, 어업인,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방향 도출

### 1) 전통적 어촌 자원의 보전과 활용

- 전라북도는 세계적인 갯벌자원과 도서, 연안 지역의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어촌체험마을의 성공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어촌 자원은 어장, 어항, 어촌, 배후권역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 공간, 인적 자원 등이 있음
  - 전라북도 어촌의 강점인 갯벌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수산물, 어촌문화, 역사 자원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2) 어업 외 활동 분야에 특화 필요

- 수산업 전반적으로 총 허용 어획량, 금어기 등 무분별한 어업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전통적인 수산업 활동은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임
  -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로 수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으며, 어업 활동 범위가 축소됨
  - 어촌의 고령화는 어가 인구의 감소로 연결되어 어업 노동력 부족 문제로 어업 활동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음
- 해양수산부의 어가소득 5천만 원 시대 역시 어업 활동과 더불어 어업 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전라북도 어촌 역시 어업 외 활동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의 어업 외 활동은 어촌관광 주도로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중심으로 추진됨
  - 전라북도의 어촌체험마을은 어촌 자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 어촌체험마을 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어촌 자원이 유사하여 체험프로그램의 요



소가 제한적이므로 다른 지역 어촌체험마을과 차별적인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음

○ 어업 외 활동은 어촌체험마을이라는 공식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어촌 체험이 아니더라도 어촌 공간에서 부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어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을 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는 연중 요트경기가 개최되지 않지만, 요트를 이용한 해양레저 청년창업 기회를 부여하여 요트투어로 차별화됨

○ 어촌을 배경으로 한 예술인의 역할이 조망되고 있음. 어업 활동 혹은 어촌 관광 활동과 무관하지만 예술인의 작품이 어촌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도 함

- 전라남도 여수의 바다 산책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여수밤바다(버스커버스커)'라는 가요가 인기를 끌면서 관광 상품화가 되었음

- 여수시는 여수밤바다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산책로를 정비하고, 길거리 공연단을 유치하여 밤바다 산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음

-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인 베로나는 셰익스피어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데, 소설 속에 나오는 장소를 관광 상품화하여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음

### 3) 지역 청년의 도전과 꿈의 공간

○ 어촌계는 어촌 공동체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마을별로 구성되어 어장의 분배, 이용, 생산과 수입의 분배 등을 결정함

- 대부분 어촌계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 혹은 가입비 등 가입조건을 설정하여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귀어민과 원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전라북도의 경우 64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일부 어촌계에서 계원 간, 신규 가입 희망자 간 갈등이 존재함

〈그림 4-3〉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향



- 어촌은 어촌계 중심의 사용으로 지역 사회의 참여가 제한적임. 바다는 열린 공간이자 모두의 자원이므로 지역 거주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관광객 뿐 아니라 예술가, 청년 창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함
-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청년의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융합한 전주시 남부시장 청년몰의 성공사례를 주목할 수 있음. 도전과 꿈의 공간을 부여하여 공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음

## 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비전과 목표

### 가.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비전과 핵심가치

#### 1)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비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 전라북도 어촌 공간은 전통적 어촌 자원을 보전하고, 어업 외 활동에 특화하며, 청년의 도전과 꿈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어촌 공간이 전라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어야 함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방향을 표상하는 표어를 선정하여 어촌 공간과 일체화하면, 어촌 공간을 활용하는 모든 관계자의 가치 공유가 가능함
  - 공간을 상징하는 어장, 어항, 어촌에서 핵심 단어를 추출하였음
  - 어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성장 제한, 어촌계의 배타적인 활용 공간 등 부정적 어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의 공간 '바다'로 사용함
- 어항과 어촌마을은 '어촌'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공간 개념으로 '어촌'을 사용함. '어촌'과 '바다'라는 공간적 개념 앞에 적절한 수식어를 결합하여 어촌과 바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표출할 수 있음
  - '어촌'은 귀어·귀촌이 이루어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공간으로 긍정적 의미와 어촌계 갈등, 귀어민과 원주민의 갈등 등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긍정적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열린'공간의 의미를 결합함. '열린'공간이기 때문에 폐쇄적 사용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바다'는 인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용해온 대상이자, 삶의 중요한 터전이었음. 바다는 세상의 모든 넷물을 받아들이고 모으는 도덕경의 말처럼 관용과 포용의 공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최성두 외, 2016)
  - 인류에게 '도전'의 대상이 되었던 '바다'는 분야, 지역, 사람 등을 가리지 않고 도전의 공간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유도함

- 위에 언급한 개념을 종합하여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의 비전은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라고 설정함

## 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핵심가치

### 가) 개방

-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라는 표어와 같이 어촌 공간은 열린 공간이어야 함.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있어야 하며, 어업 분야가 아니라도 기회가 열려있어야 함
- 폐쇄적인 구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한적임. 열린 공간에서는 모든 생각이 존중받을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개방성을 지향하면서 기존에 어촌 관련 폐쇄성, 배타성과 같은 부정적 느낌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나) 참여

- 어촌 공간을 활용하려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임. 어업, 어촌관광 등 기존 업무와 관련된 당사자의 참여는 물론이고, 어촌 공간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가, 어업후계자, 예술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야 함
- 어촌 공간을 활용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의 참여가 필요함. 고객 만족도가 높아야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 따라서 어촌 공간을 활용하는 도전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 독려가 필요함

#### 다)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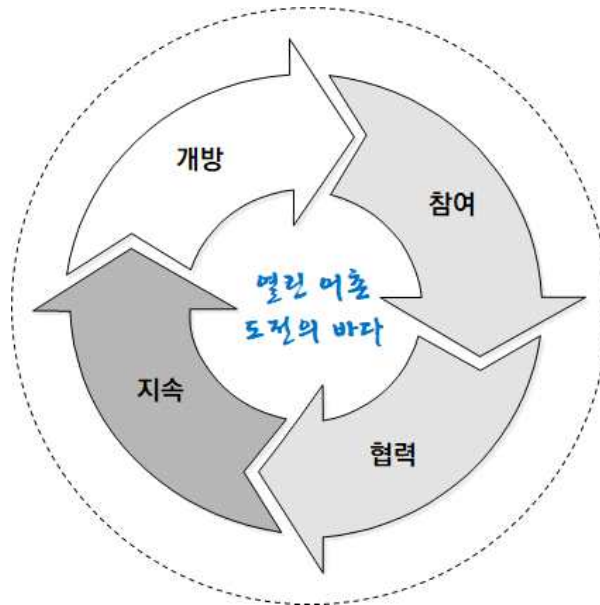
- 어촌 공간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다보면 참여자와 원주민 간 갈등 요소가 존재함. 감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궁극적으로 참여자와 원주민은 모두 어촌 공간 활성화를 지향하는 주체임
- 협력은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참여자와 원주민 간 협력 관계가 형성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가지지 못한 어촌 경험을 도전 대상에 결합하는 등 순기능이 있음

#### 라) 지속

- 어촌 공간 활용의 개념적 모델은 누구에게나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임. 이를 위해 개방, 참여, 협력 등 핵심 가치를 부여하여 창의적인 어촌 공간 활용을 독려함
- 어촌 공간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대개 어장, 어항, 어촌마을, 배후권역 등으로 구성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특정 어촌에서 성공 사례가 개발되면 벤치마킹, 모방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짐
  - 창의적인 도전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성공하여 사례가 소개되면, 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어촌 지역이 모방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모방할 경우 처음 시도하는 주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도자가 누릴 수 있는 경쟁적 이익 기간이 짧아짐

- 어촌 공간의 성공사례는 피드백 관계에 있으므로 성공 노하우의 공유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됨. 다만, 한 번의 성공에 취하면 금세 뒤쳐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도전을 추구해야 함

〈그림 4-4〉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의 비전과 핵심가치



- 지속적인 도전을 위해서는 단발성 노력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체계화 작업은 개인 또는 단일 어촌의 성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구조화함
  - 예컨대, ‘지역 바다 축제 기획’ 공모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집되었고, 공모자를 중심으로 행사 기획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체계화하여 정기적으로 축제 기획을 공모하는 것임
  - 이전에 성공한 축제보다 나은 축제를 기획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의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지자체의 바다 축제 사례도 검토하여, 독창적인 전라북도 바다 축제 기획을 할 수 있음
  -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면 전라북도 바다축제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할 수 있음

## 나.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목표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은 어촌 공간 활용의 비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와 4가지 핵심 가치인 개방, 참여, 협력, 지속에 맞추어 3가지 활용목표를 수립하였음
- 3가지 활용목표는 ‘개방과 도전의 어촌’,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지속과 보전의 바다’ 등임

〈그림 4-5〉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목표



### 1) 개방과 도전의 어촌

- 기존 어촌 공간은 어업인의 작업과 주거 공간의 개념이 강했음
  - 어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촌계가 결성되었고, 어촌계가 공동 어장을 관리하는 형태로 어장 활용의 배타성이 존재함
  - 최근 귀어·귀촌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만 대개 정착 단계에 어촌 원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이 어업인의 작업과 주거 공간으로만 활용될 경우 고령화에 따른 어

가 인구 감소로 어촌 마을이 소멸될 수 있음

- 어촌 고령화 문제는 젊은 인력의 유입으로 해소할 수 있음. 어촌의 젊은 인력은 가족 중심의 어업후계자가 있는데 어업을 이어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어촌의 폐쇄성은 갈등을 야기하고, 주민 간 협력을 방해하여, 어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침

- 전라북도의 모든 어촌이 폐쇄성으로 인한 악영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폐쇄적인 조직구조는 성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폐쇄성의 문제는 개방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임. 현행법상 어촌 공간의 전면적 개방은 어렵지만, 어촌 유희 공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를 결합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경계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바다 숲, 바다목장 조성 등에 적극적임

- 어업은 성장의 상한이 존재함.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업 외 영역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함
- 어촌은 어장과 어항, 마을이 공존하므로 바다와 관련된 사업이면 좋겠으나, 꼭 바다 관련 사업이 아니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있음

○ 어업 외 영역의 신규 사업 발굴을 어촌거주자 중심으로 추진하면 좋으나, 참신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에서 도출되는 경우가 많음

- 불과 얼마 전까지 없었던 요트스테이는 청년 창업공모에 의하여 기획되고 추진되어, 현재 부산시 요트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하였음
- 궁극적으로 어촌 공간에 다양하고 젊은 인력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어촌은 개방과 도전의 어촌으로 열린 공간이자 도전의 공간으로 어업 외 사업 분야를 다양하게 시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함
  - 어업 분야와 어촌관광 분야는 기존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산업 육성계획 등 관련 계획에 따르면 됨
- 개방과 도전의 어촌은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로 구성함
  - 바다청년창업지원
  -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운영
  - 열린 어항공원 조성과 활성화

## 2)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 어촌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주체 간 자발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전라북도 도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주민과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어촌의 유희부지가 될 것이며, 분야는 어촌 경관 개선과 기존 어촌 자원의 활성화로 한정함
  - 어촌 거주자의 반발은 줄이고, 모두의 어촌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기존 어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최적화함
  - 아름다운 어촌 경관, 쾌적한 어항 등을 위한 벽화그리기, 조형물 제작, 깃발 예술 등 다양한 재능을 기부하여 함께 만들어 나감

- 어촌 특화 축제 기획, 전라북도 바다메뉴 개발, 해산물 조리법 연구 등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주민 주도형 어촌 활성화 사례로 만들
- 어촌 유희공간에 조성한 공동 작업 공간, 빈집 활용 등을 무기로 예술인을 유인할 수 있음
  - 예술인은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에서 개인 예술 활동에 몰입하는데, 작업환경을 마련해주고 예술인의 재능을 어촌 공간 활용에 결합할 수 있음
-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으로 구성함
  - 공동 업무 공간(Co-Working Space) 조성
  - 어촌 빈집 리모델링·활용
  - 어촌 활성화 공모전
  - 어촌 예술인 공간 조성

### 3) 지속과 보전의 바다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은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함
  - 따라서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함.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스템화가 필요함
  -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를 표어로 상시 운영·지원·감독할 주체가 있어야 함
- 전라북도의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의 해리포터(海reporter)와 같이 대학생과 도민으로 구성된 일반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단을 구성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세대에서 넘겨주어야 할 바다 자원으로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고, 지

속적으로 바다 숲,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어촌 공간 활용이 개발 일변도로 가지 않으려면 어촌 공간을 난개발하지 않도록 감시할 견제장치가 필요함

○ 어촌 공간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함.  
어촌 콘텐츠는 어촌 거주자, 어르신들에게 전승된 이야기 등을 토대로 각색할 수 있음

○ 지속과 보전의 바다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으로 구성함

- 전라북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 전라북도 바닷가 모니터링
- 전라북도 어촌 자원 발굴단

### 3.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 가. 개방과 도전의 어촌

##### 1) 바다청년창업지원

###### ■ 개념

- 좁게는 전라북도, 넓게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어촌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개방하고, 이를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의미함
  - ‘바다청년’은 인문학적으로 바다가 도전의 공간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도전의 창업과 연상되는 이미지가 같음
  - 전라북도와 시·군이 주도하여 어촌 공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공모하여 현실성이 있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긍정적인 아이템에 한하여 포상 차원에서 창업 추진 자금과 공간을 지원함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한국어촌어향협회의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음
  - 귀어·귀촌 창업은 대개 어선어업, 수산양식, 가공유통, 어촌관광 등 기존 어업 활동과 어촌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어업활동과 어촌관광은 기존 어민, 어촌 거주자들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귀어·귀촌종합센터와 해당 어촌계의 도움을 받아 정착할 수 있음
- 창업의 경우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절한 창업 기획안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있고, 어촌 공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경우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유한한 어촌 자원 중 활용하지 않는 영역은 어업 외 활동 분야이며, 해당

영역에서 창업을 한다면 어촌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바다를 대상으로 하고, 어촌을 창업공간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창업 희망자를 발굴하고 지원함
- 전라북도 바다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청년의 바다창업을 지원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활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에 기여함

## ■ 사업추진 타당성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관리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
  -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수요에 의해 할 수도 있지만, 벤처창업을 토대로 소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해양수산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핵심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하였음.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증대, 국민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함
  -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해운산업, 해양수산업, 해양관광레저산업에서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임
  - 청년 귀어 정착금을 지원하고 소자본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어촌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함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 ■ 세부사업내용

- 전라북도 바다청년창업희망자 상담
- 전라북도 바다청년창업계획서 공모전 운영·관리
- 바다청년창업자와 전문가 매칭 등 단계별 지원
- 바다청년창업 희망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바다청년창업 성공·실패 사례집 제작

## 2)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운영

### ■ 개념

- 어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는 대개 어업인임. 어업 생산의 전문가이지만 사업화,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어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어촌 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자, 어촌 6차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음. 어촌 6차 산업화 지원에 특화할 수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와 사업 추진에 전문성 있는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서 특색 있는 전라북도 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바다청년창업지원과 연계하여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단계에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음
- \*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은 정책전문가, 컨설턴트(물류, 마케팅, 경관관리 등), 해양수산업 전문가, 실무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영역별 전문성, 영역 간 융합 효과 제고 등을 지원함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과 기초 생활수준을 높이고 편의 증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유지와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함
  - 지역 특화를 독려하기 위한 개발 계획에 대개 다른 시·도 어촌에서 추진한 특화 전략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음
  - 전라북도의 농산어촌 육성방향과 정책기조를 인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계성에 강점이 있는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함
- 어촌 공간의 독창적인 활용과 공간 효율 증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율

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

- 어민들은 어업과 어촌관광 등 전문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새로운 영역과의 결합, 적용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전라북도 어촌 공간은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바다청년창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계획서는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현실화 작업을 해야 하며, 아이디어 구상 단계일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구체화해야 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이 구성되면 바다청년창업에도 선순환 효과가 기대됨

○ 비교적 소규모의 예산으로 해양수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경관관리, 물류,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전라북도 농산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화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음

## ■ 사업추진 타당성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마을 과소화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 어촌 주민의 소득은 어업 활동과 어촌 관광 활동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으로 한정됨
- 효율적인 경영 관리 기법을 컨설팅 하여 본업에서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어촌 6차 산업화로 어민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어민은 경영 관리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할 수 있음

- 거주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부족한 경영노하우를 보완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 ■ 세부사업내용

-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 전라북도 바다청년창업자 컨설팅 지원
- 전라북도 어촌공동체 사업 컨설팅 지원
-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 사례집 제작

### 3) 전라북도 열린 어항공원 조성

#### ■ 개념

- 어항공원은 어항 부지를 공원화하여 방문자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함.  
‘열린’이라는 개념은 어항공원 조성에 주체를 열어둔다는 의미와 어항공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의미함
- 어항공원 조성을 인위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구 관리, 어항 주변 정화활동 등 소극적 활동과 어항 기능과 조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형물, 벽화 등 예술작업을 병행하는 적극적 활동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음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어항은 마을과 어장의 접점으로 어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어선의 정박, 수산물의 양륙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어촌관광의 중심지 역할도 함
- 어항은 어업 기지 역할이 주 기능이므로 각종 어구, 장비 등이 사용되고, 정돈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관도 좋지 않음
- 어촌 관광객은 대개 어항 인근의 수산물 시장, 음식점, 카페 등 편의시설을 즐기게 되므로 어항은 어촌 관광의 중심지임
- 어항은 어선의 정박, 하역 작업 이외의 유휴 시간과 공간이 생김. 어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유휴 공간에 폐어구를 활용한 조형물을 만들거나, 어선에 깃발을 매다는 등 경관 개선을 할 수 있음
- 새로운 시설을 개발하지 않고, 어항 부지에서 활용하는 장비, 폐어구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볼거리를 연출함
- 지역 대학의 예술 전공 교수, 학생, 예술가 등이 참여하여 어항 부지를 어촌 생활사 박물관처럼 운영할 수 있음

- 전라남도 고흥군 연흥도는 선호남 관장이 연흥도 주민과 함께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껍질, 폐어구 등 자연 재료로 공예 작품을 만들고, 벽화를 그리고, 어항 부지에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였음
- 연흥도는 이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칭을 얻고, 섬 특성 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볼거리로 극복함

○ 전라북도 열린 어항공원은 대형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예술가, 대학생, 도민 등이 어항 부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공간을 의미함

- 열린 공원이 된 어항부지에서 각종 문화 행사와 토요어시장(이승우 외, 2017) 등을 열어 어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토요어시장은 자연스레 야시장으로 연계되어 체류형 관광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야시장은 밤에 열리는 시장으로 먹거리, 즐길 거리, 실용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음. 대만 타이베이 야시장은 대만 특유의 외식문화가 반영된 전통이자, 핵심 관광 상품이 되었음.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전주남부시장야시장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야시장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즐거움을 줌

〈표 4-1〉 전라북도 소재 예술 관련 전공설치 대학 현황

| 대학      | 미술·공예 관련 학과                                                                             |
|---------|-----------------------------------------------------------------------------------------|
| 군산대학교   |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세라믹콘텐츠디자인학과, 조형예술디자인학과                                                   |
| 우석대학교   | 산업디자인학과                                                                                 |
| 원광대학교   | 미술과, 시각정보디자인전공, 공간환경·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과, 서양화과, 서예학과, 한국화과, 고고·미술사학과, 귀금속보석공예과, 조소학과, 조형미술학과 |
| 전북대학교   | 미술학과(한국화, 서양화, 조소, 가구조형디자인), 산업디자인과                                                     |
| 전주대학교   |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                                                              |
| 예원예술대학교 | 시각디자인학과, 미술전공, 미술조형학과, 한지조형디자인학과,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문화재보존예술학과                                 |
| 호원대학교   | 공공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

## ■ 사업추진 타당성

- 해양수산부는 어촌 경제활동의 거점이자 생활공간인 어항을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재창조하고자 함
  - 어촌마을 재생형, 어촌관광 수요 창출 형으로 어항 경관을 개선하여 국민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해양수산부, 2018)
- 어촌 주민과 도민, 대학생, 예술가 등이 주도하여 어항 부지를 열린 공원으로 화하면 정부 지원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침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전라북도 아름다운 어항 추진단(가칭)

## ■ 세부사업내용

- 전라북도 아름다운 어항 추진단 조직
- 페어구를 활용한 조형물 제작
- 어촌벽화마을 조성
- 어선 깃발 디자인
- 전라북도 열린 어항 토요 야시장 운영

## 나.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 1) 열린 어촌 공동 업무 공간 조성

#### ■ 개념

- 어촌 유희부지에 공동 업무 공간(Co-Working Space)을 조성하여 어촌 거주자, 바다청년창업자, 귀어·귀촌인, 예술가, 일반인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을 의미함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 후계자, 청년 경영인 육성이 필요함
  - 도내 해양수산 종사자의 자녀들은 도시에 비해 낙후된 어촌정주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생활을 선호함
  - 어촌정주여건,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어촌 공간에 공동 업무 공간(Co-working Space)을 조성하여 출퇴근 개념으로 해양수산업 종사가 가능함(전북연구원, 2017)
- 프리랜서, 프로젝트 단위 개발자 중심으로 휴양지의 Co-Working Space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 국내 주요 도시에도 Co-Working Space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와 전북혁신도시에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Co-Working Space는 건물이므로 건축비 부담이 큼. 공간 효율성과 건축비 절감을 위한 컨테이너 사무실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바다청년창업공모에 선정될 경우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다른 창업자 또는 어업인과 협업할 가능성이 높아짐

-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라는 표어와 일치하며, 어촌 공간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어촌 거주자, 창업희망자, 기타 제3의 사용자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바다청년창업자, 어촌 예술가의 경우 일정 기간 무료 이용이 원칙이며, 무료 이용 기간이 도래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어촌거주자 또는 도시 거주 어업인 : 사무실 용도로 활용함.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함
  - 일반 이용자 : 단기 프로젝트, 프리랜서 등 사용료 지급함. 어촌 빈집 리모델링과 활용을 연계하여 어촌 숙박과 결합하여 장기간 거주와 작업을 지원함

## ■ 사업추진 타당성

-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업의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이 2018년 해양수산부의 핵심 정책 방향임
  - 해양수산업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 어업인의 후계자가 어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받아야 함
  - 일부 어업 후계자는 해양수산을 하는 것은 좋는데, 도시 거주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창업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자본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자 함.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과정까지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함
  - 일부 공간을 바다청년창업자에게 할당하면 어촌 유휴공간에서 해양수산업의 계승과 더불어 새로운 영역의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복지 어촌 조성) 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활동 기반 6차 산업 고도화를 추진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 ■ 세부사업내용

- 전라북도 열린 어촌 공동 업무 공간 조성
  - 개인 사무실, 공동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복합기 FAX, 휴게실 등
- 전라북도 열린 어촌 공동 업무 공간 시범 운영

## 2)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리모델링

### ■ 개념

- 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바다청년창업자, 귀어·귀촌인, 예술가 등 거주 공간으로 제공함
  - 오병록(2017)의 연구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내 방치된 빈집이 많이 있으며, 특히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집계된 빈집이 2,9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오랜 기간 방치되어 현 상태 대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도내 사회적 기업(리모델링, 건축 등)이 빈집 리모델링을 하고, 완료된 빈집 중심으로 열린 어촌 거주 공간으로 활용함
  - 방치되어 경관을 훼손하는 악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선순환을 위하여 소유자의 협조를 토대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어촌 지역의 빈집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전라북도 어촌의 빈집 수를 조사한 결과 군산시 710개, 김제시 1,100개, 고창군 518개, 부안군 592개로 나타남(오병록, 2017)
  - 농산어촌 지역의 빈집은 거주자가 도시로 이주하고, 관리되지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 반대로 은퇴 후 돌아와서 살기 위해 팔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빈집의 경우 대개 수리·보수를 필요로 함. 방치할 경우 시간 흐름에 따라 흉물로 전락할 수 있음
- 유휴 자원으로 빈집 역시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기본적으로 빈집은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거주지로써의 가치를 향상해야 함
  - 지역 사회의 열린 공간, 함께 만든 공간이라는 의미로 전라북도 내 사회적 기업에게 수리, 인테리어, 관리·보수를 담당함



〈표 4-2〉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 집수리, 인테리어, 건물 관리 분야

| 업체명         | 업무영역                                        |
|-------------|---------------------------------------------|
| (유)지음건축     | 저소득층 집수리, 주택 신축재건축,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건설자재 유통    |
| (유)국민종합주택관리 | 청소, 시설물관리                                   |
| (유)대산환경     | 청소, 건물관리, 소독, 방역, 물 없는 세차, 수질 방지업, 에어컨 유지관리 |
| (유)두레건축     | 저소득층 주거복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
| (유)맑은누리     | 학교, 민간기관 청소, 소독, 천연도로 사용                    |
| (유)보은건설     | 집수리, 주택개조, 에너지효율개선, 건축자재판매, 토·건축유료용역 등      |
| (유)수인테리어    | 취약계층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 (유)중앙환경기업   | 보장구 판매 및 환경관리, 특별청소용역                       |
| (주)필건축인테리어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위탁수행,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
| (유)마이크린     | 청소, 방역                                      |
| (유)무균지대     | 학교청소, 방역                                    |
| (유)상우산업개발   | 집수리 및 인테리어                                  |
| (유)클린월드     | 학교청소, 방역                                    |
| (주)깨끗한 오늘   | 위생관리용역(청소 등), 소독업, 건축시설물 관리                 |
| (주)마한환경     | 물탱크·외벽·위생관리용역청소, 건물관리, 소독방역, 청소·방역 용품 판매    |
| (주)다솜건축인테리어 | 저소득가구 집수리,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가스온누리 사업        |
| (주)더클린산업    | 건축물 종합관리(시설, 관리행정, 환경미화, 안전관리, 소독·방역)       |

○ 수리된 어촌 빈집은 바다청년창업자, 귀어·귀촌인, 예술가 등 임시 숙소로 사용됨

- 바다청년창업자의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어촌 빈집에서 머물도록 함. 무료 기간 도래 또는 수익 발생 시 임대료 부과함
- 예술가를 대상으로 작업공간과 거주시설로 제공할 수 있음. 예술가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탄생한 결과물을 어촌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음
- 일부 여유 공간은 어촌 숙박시설로 활용함. 주민 수요가 있는 경우 빈집을 공부방, 작은 도서관, 회의실, 경로당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 ■ 사업추진 타당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7. 2. 8.)』이 제정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빈집을 철거,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 문제로 지적됨
- 해양수산부는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를 토대로 어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고, 어촌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어촌의 빈 집 리모델링 및 활용은 정책 타당성이 높음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 ■ 세부사업 추진단계

- 전라북도 빈집 소유자 및 어촌 빈집 공유 사업 의향 조사
-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리모델링 업체 선정
-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관리 업체 선정
-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정보제공 사이트 제작·운영
-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운영

### 3) 어촌 활성화 공모전

#### ■ 개념

- 어촌 활성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음.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라북도 어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함
  -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방법이며, 먹거리, 즐길 거리 중심으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가 가능함
  - 제안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 행사 기획에 참여하는 등 특전을 제공하여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어촌 자원은 무궁무진하지만 현재 수산업 기지로써 어항과 어촌관광 정도로 활용하고 있음
  - 어항 부지 활용, 어촌 관광 프로그램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별성이 없어짐. 대개 성공사례가 소개되면,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어촌에서 시도하기 때문임
-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 거주자, 지역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먹거리, 즐길 거리 중심으로 어촌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전을 추진하고, 채택된 기획안에 대해서는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색다른 아이디어와 참여율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 ■ 세부사업내용

○ 전라북도 특화 해산물 선정

- 해가람 브랜드와 연계하여 특산물 홍보

○ 전라북도 바다 요리사 선정, 바다 메뉴 개발

- 전라북도 바다 요리사를 선정하여 요리법 공유

- 전라북도 대표 바다 메뉴를 개발하여, 주요 음식점 판매(예: 장흥삼합)

○ 전라북도 어촌 축제 기획 공모와 진행

- 전국 어촌에서 추진 중인 축제 프로그램은 일부 차별적인 것이 있으나 대개 대동소이함

• 대개 어촌 축제는 물고기 중량 맞추기, 시식회, 유흥행사, 전통문화공연, 특산물 구입, 맨손물고기 잡기, 방류, 해양레저, 갯벌 올림픽 등이 있음.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부산 기장의 패밀리가 떴다, 멸치 기네스 등이 있음

- 수동적인 참여자로 대동소이한 축제 프로그램을 따르기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독특한 어촌 축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행사 기획 단계에서 도민이 참여하게 되면 독창적인 프로그램, SNS 홍보, 직접 진행 등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 최근 어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어촌 행사시 국가 부스를 설치하여 해당 국가 음식 판매, 바다 전설소개 등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음

#### 4) 어촌 예술인 공간 조성

##### ■ 개념

- 어촌 유희 공간을 예술인 작업 공간으로 제공하여 어촌을 배경으로 다양한 예술작품(문학, 미술, 음악 등)이 등장하는데 뒷받침하고자 함
  - 전략적으로 예술인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술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예술인의 유입이 이루어지면 어촌은 예술 콘텐츠 탄생과 소비의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음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는 조용한 여수의 밤바다를 거닐던 한 예술가의 경험을 표현한 대중가요로 큰 인기를 끌었고 덩달아 전라남도 여수시를 밤바다가 아름다운 도시로 포지셔닝하였음
  - 아름다운 항구도시, 야경이 예쁜 도시 등 여러 가지 표어가 경쟁하였지만, 대중가요 한 곡으로 여수는 밤바다가 아름다운 곳으로 인식됨
  - 그에 맞추어 여수시에서는 거리 음악단의 공연과 조명, 경관관리 등을 통해 정말 밤바다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음
  - 많은 사람이 여수의 밤바다를 걷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작업공간을 제공하면 어촌을 배경으로 한 예술작품이 탄생할 수 있음
  - 열린 어촌 빈집을 일부 예술인에게 부여하여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결과물을 어촌공동체가 누릴 수 있게 함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 ■ 세부사업 추진단계

- 어촌 유희 공간을 창작, 전시, 공연, 교육공간으로 활용함
- 열린 어촌 빈집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술인에게 공간 제공
- 예술인 교육 재능기부 활동
- 어촌 예술인마을 조성 : 바다문학, 예술, 창작 거주 지원 센터

## 다. 지속과 보전의 바다

### 1) 전라북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운영

#### ■ 개념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어촌 공간 활용 방안은 단기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장기, 중기, 단기 등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나 타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듯이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하여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세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공지사항을 전달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어촌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 도내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하여 전라북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개방과 도전의 어촌에서는 창업지원, 취업 등 각종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에서는 공동 업무 공간 이용 안내, 열린 어촌 빈집 현황, 프로그램 공모전 소식, 결과 등을 전달할 수 있음
  - 단발성 정보 전달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지속성을 고려한 전라북도 어촌 홍보단 활동은 어촌 공간의 효율성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 사업추진 타당성

- 전라북도 도내 대학생 기자단, 인턴십 등 다양한 산·학 연계 제도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함
- 지속적인 정보 전달, 콘텐츠 생산은 결국 도민의 관심으로 연결되어 어촌 공간 활용에 긍정적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 ■ 세부사업내용

- 전라북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결성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프로그램 홍보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체험기 공유
- 전라북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성과보상(장학금, 상품 등)



## 2) 전라북도 바닷가 모니터링

### ■ 개념

- 기본적으로 어촌은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시설 공사, 어업 강도 조절, 어항 인근 경관 관리 등 다각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함
  - 기존 행정 지도 방식으로 어장, 어항, 마을, 배후권역 등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여 어민, 도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깨끗한 바닷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바닷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함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어촌은 어장, 어항, 마을, 배후권역 등 광범위한 공간적 범위를 포함함. 아름다운 어항은 대개 여러 가지 시설물이 투입된 곳이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돈된 곳임
- 어촌 난개발의 범위는 무분별한 시설 공사, 총 허용량을 초과한 어획 강도, 공간 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건설 등 어촌 공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으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어장, 어항, 어촌, 배후권역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견제함
  - 정부가 주도하는 감시와 함께 전문가와 도민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면 어촌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사업추진 타당성

-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법 근거를 토대로 어장 보전, 생태계 보호를 위하

여 금어기 설정, 불법 어업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불법 어업 단속, 금어기 위반, 총허용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정부의 단속 근거의 효과를 높이고, 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함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 ■ 세부사업내용

- 전라북도 바닷가 모니터 요원 모집·운영
- 어촌 생태계 모니터 추진
- 어촌 해양환경미화원 선발·운영
- 고군산군도, 부안군 마실 길, 고창군 이야깃길 등 생태로 보전

### 3)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단 운영

#### ■ 개념

- 지속 발전 가능한 어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촌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함. 어촌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전, 활용하는 주체로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어촌 콘텐츠는 어촌 특유의 환경, 전통 어업, 풍습, 어촌 자원 등을 콘텐츠화하여 문화유산자원, 역사교육 자원, 관광 자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어촌은 환경, 전통 풍습과 다양한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어촌 전통문화는 보전해야 할 자산임
-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과 평가방법을 공개(2016. 12.)하여 적극적인 어업유산 발굴을 독려하고 있음
  -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유산의 특징(수산물, 생물다양성, 지식체계, 전통문화, 경관형성), 역사성, 지역성(지자체 정책, 인식도, 지속가능, 가치 제고) 등 3가지 분야, 1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기간 형성·진화해 온 전승할 가치 있는 전통적 어업 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 나타난 어촌 경관·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함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는 다양한 공간 활용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어촌 공동체의 전통 문화, 역사 자원 등을 검토하여 어업유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 사업추진 타당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3항에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중요어업유산 중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 세계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됨. 전 세계적으로 어업유산의 발굴과 보전에 관심이 높음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관계 시·군

## ■ 세부사업내용

-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단 구성
- 전라북도 어촌 어르신 구술 사업
- 전라북도 어촌 유배지 역사, 문학 자원 조사

〈표 4-3〉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어촌 공간 활용 종합

| 전략          | 사업                  | 기간          |
|-------------|---------------------|-------------|
| 개방과 도전의 어촌  | 바다청년창업지원            | 2019년~2023년 |
|             |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 2019년~2023년 |
|             | 전라북도 열린 어항공원 조성     | 2020년~2023년 |
|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 열린 어촌 공동 업무 공간 조성   | 2019년~2023년 |
|             |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리모델링  | 2020년~2023년 |
|             | 어촌 활성화 공모전          | 2019년~2023년 |
|             | 어촌 예술인 공간 조성        | 2021년~2023년 |
| 지속과 보전의 바다  |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운영 | 2020년~2023년 |
|             | 전라북도 바닷가 모니터링       | 2021년~2023년 |
|             |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단 운영    | 2019년~2023년 |

# 5

장

## 결론

- 
1. 연구 요약과 기대효과
  2. 정책제언



# 제5장 결론

## 1. 연구 요약과 기대효과

### 가. 연구내용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가치 있는 어촌 공간으로 재창조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그림 5-1〉 연구요약



-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음. 제1단계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 운영 현황분석으로 어촌 여건분석과 전라북도 어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어촌 여건분석은 세계 여건 변화, 정부와 타 지자체의 어촌 공간 관련 계획 추진과 성과 등을 정리하였음
  - 전라북도 여건분석은 전라북도의 어촌마을, 어항 실태조사와 관련 계획의 추진 성과 등을 정리하였음

- 제1단계 과정에서 어촌 공간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내외부 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의 요인을 도출하였음
- 제2단계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어촌 공간 활용의 핵심가치를 설정하였음.
  - 정부의 어촌 활성화 계획과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어촌 공간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음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방향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에 맞추어 개방, 참여, 협력, 지속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하였음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전략은 세 가지로 첫째, 개방과 도전의 어촌, 둘째,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셋째, 지속과 보전의 바다 등으로 설계함
- 제3단계에서는 세 가지 어촌 공간 활용 전략에 맞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음. 개방과 도전의 어촌은 어촌 공간의 배타성 대신 열린 공간으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 관련 과업으로 바다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농산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전라북도 열린 어항공원 조성 등을 제안하였음
-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협력의 공간으로 어촌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 관련 과업으로 열린 어촌 공동업무공간 조성,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리모델링, 어촌 활성화 공모전, 어촌 예술인마을 조성 등을 제안하였음
- 지속과 보전의 바다는 어촌 공간 활용, 어촌 활성화는 단발적 사업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바다 자원을 보전해야 하는 사명을 담고 있음
  - 관련 과업으로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전라북도 어촌 난개발 감시단 운



영,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단 구성 등을 제안함

- 현재 어촌 공간과 관련된 정책, 사업 등은 대부분 어업과 어촌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음
  - 본 과업은 어촌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어업과 어촌 관광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토대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어항, 어촌의 유희 공간, 시간을 활용하고 어촌 주민과 도민이 주체가 되어 거대 예산 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운영 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해양수산, 생태 전문가 중 어촌의 낙후성은 시설이 부족하고 미개발된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한 결과 여유롭고 조용한 바다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낙후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 어촌 고령화에 따라 어촌 마을 과소화 현상은 거대 시설 투입으로 해결하기보다 유희 공간을 개방·활성화하여 젊고 도전적인 청년의 유입을 이끄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본 과업에서 제안한 10가지 어촌 공간 활용방안은 대부분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관점, 어촌 주민과 도민 주도의 협력 과제로 구성하였음
  - 어촌 공간 활성화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어촌 공간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결국 활성화의 주체인 사람이 개방, 참여, 협력, 지속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추진해야 함

〈표 5-1〉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어촌 공간 활용방안 종합

| 비전              | 핵심가치 | 목표          | 추진사업                |
|-----------------|------|-------------|---------------------|
| 열린 어촌<br>도전의 바다 | 개방   | 개방과 도전의 어촌  | 바다청년창업지원            |
|                 |      |             |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
|                 |      |             | 전라북도 열린 어항공원 조성     |
|                 | 참여   |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 열린 어촌 공동 업무 공간 조성   |
|                 |      |             |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리모델링  |
|                 |      |             | 어촌 활성화 공모전          |
|                 | 협력   | 지속과 보전의 바다  | 어촌 예술인 공간 조성        |
|                 |      |             |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운영 |
|                 |      |             | 전라북도 바닷가 모니터링       |
|                 | 지속   |             |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단 운영    |

## 나.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단순 수산업 작업 공간 역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경관관리를 통하여 어촌관광의 신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어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바탕으로 어촌 거주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함
- 어촌 공간 활용 트렌드,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연구 과정에 반영하여 전라북도 어촌마을의 정부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도내 여건을 고려하여 독창적인 전라북도형 어촌 활성화 사례를 만들어 지역 어촌 활성화뿐 아니라 타 시·도 어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 상향식(bottom up) 성공 사례 및 모델 제안으로 대한민국 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수산업, 수산식품산업 등 전통적인 해양수산업이 아닌 어촌 공간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하여 어촌이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음

## 2. 정책제언

- 어촌 공간을 어업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음. 어촌 공간은 어업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념적 범위를 확장해야 함
  - 생각의 전환(역발상)으로 전라북도 어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첫째, 어촌 공간을 어업, 어촌관광에 국한하지 않아야 함
  - 수산업을 목적으로 귀어·귀촌한 경우 어장 사용과 관련하여 어촌계 가입 등 문제가 존재함
  - 또한, 수산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을 이유로 무분별한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업 활동의 상한이 존재함
  - 수산업의 성장 한계를 고려해야 함. 어업 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
  
- 공간 활용의 범위를 제한하면 할 수 있는 영역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함. 어촌체험마을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대동소이한 결과가 발생함
  - 어촌 공간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기존 어촌 사업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어촌마을 과소화 추세도 공간 활용 범위를 넓히면 해소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어쩔 수 없지만,
  -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는 출퇴근의 개념보다 여유롭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므로 어촌 과소화 해소와 활성화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어촌 공간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어민과 어촌 거주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어촌을 어업의 공간, 어업을 하

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생각함

- 실제로 어장, 어항, 어촌을 어민, 어촌 거주자가 사용하고 있음. 어촌의 배타성, 폐쇄성은 고령화, 어가인구 감소 등 어촌 과소화로 연계됨

○ 어촌 공간을 활용하는 범위를 어업 후계자에 한정하기보다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에게 어촌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고,
- 끝없는 도전의 공간으로 인식하게하면 현재 배타적 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며,
- 점진적으로 어촌 과소화 문제의 전향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궁극적으로 원주민(어민)과 어촌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끼리 협업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크고 작은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함

○ 셋째, ‘전라북도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비전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산업 육성계획 등 어촌 공간에 관련된 계획은 많지만, 대개 개발, 개선 중심의 사업으로 구성됨
- 어촌 공간은 해당 사업 추진의 공간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촌답게 유지되어야 할 공간이기도 함

○ 따라서 어촌 공간을 어업 외 다양한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되 적절하게 견제하고, 어촌 공간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함

- 어민, 도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어촌 공간 활용 사업의 추진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어촌과 조화롭지 않은 개발을

경계하며, 추가적인 어촌 공간 활용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라북도 내 어항에 대한 기능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을 해양수산업 외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으므로 연구범위에 벗어나는 제언일 수 있음
  - 그러나, 전라북도 어촌 실태조사 시 어업 기지 역할 중심의 어항 운영의 재검토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 어항은 어업 공간 역할이 최우선 고려사항이었음. 그러나 최근 어항이 복합공간으로 해양레저, 어촌관광의 거점이 되고 있으므로 기능재배치, 보강 작업(안전성 제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과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로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어항의 기능 다변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기찬, 정관용, 최진, 김희숙, 김성원. (2007). Vensim을 활용한 System Dynamics, 서울경제경영.
- 김대영, 류정곤, 박상우, 김수현, 이현동, 하혜수, 하현정. (2017).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대영, 박상우, 이현동, 백진화. (2016).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성귀, 홍장원, 이성우, 최지연. (2007).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나정호, 김형오, 오병록, 이대성, 고연경. (2017).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박상우, 이호림. (2014). 어촌 그랜드 디자인 개념정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준모. (2014). 스토리텔링의 어촌관광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29(1), 23-50.
- 오병록. (2017). 전라북도 빈집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이노우에 교스케, NHK 「어촌」 취재팀. (2016). 어촌자본주의, 동아시아.
- 이승우, 고민규, 윤영준. (2016).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승우, 박상우, 고민규. (2011).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항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승우, 박상우, 김유진, 이호림. (2015).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승우, 한광석, 이현동, 고민규, 윤영준, 김미정, 안예린. (2017).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 (2008).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승우, 홍장원, 이윤정. (2009).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정환. (2015).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 RRI 포커스 제40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전라북도. (2017). 2017년 수산현황.

전북연구원. (2017). 전라북도 해양수산 지역현안문제 발굴, 전북씨그랜트센터.

김중화, 정옥식. (2013). 바다복원 사례조사 및 논리개발, 충남연구원.

중앙대학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2012). 평택항 포트세일즈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최성두, 우양호, 안미정. (2016). 해양문화와 해양거버넌스, 도서출판 선인.

한국어촌어항협회. (2009). 제4회 우수어촌체험마을 성공 사례집,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어촌어항협회. (2010). 제5회 우수어촌체험마을 성공 사례집,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어촌어항협회. (2013). 제8회 우수어촌체험마을 성공 사례집,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협회. (2014). 제9회 우수어촌체험마을 성공 사례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4A).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4B). 2020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5A).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2014~201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5B). 보고 싶은 어항 찾아가는 축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5C).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5D).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8). 2018년 업무계획 자료, 해양수산부.

## 홈페이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홈페이지. (2018. 5. 15 접속.) <https://www.bamdokkaebi.org>.

어촌 6차 산업 홈페이지. (2017. 12. 15. 접속). <https://www.seantour.com>.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2018. 5. 15. 접속). <https://www.airbnb.co.kr>.

여수시 홈페이지. (2018. 5. 15. 접속). <http://tour.yeosu.go.kr>.

완도전북주식회사 홈페이지. (2018. 5. 15. 접속). <http://wakorea.kr>.

전주시 홈페이지. (2018. 5. 15. 접속). [tour.jeonju.go.kr](http://tour.jeonju.go.kr).

태국관광청 홈페이지. (2018. 5. 15. 접속). <https://www.visitthailand.or.kr>.

헤이리 예술마을. (2018, 5. 15. 접속). <https://heyri.net>.

정책연구 2018-10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연구

---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8년 6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231-8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